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은퇴·내집·자녀·자기계발
4대 인생과제



은퇴자산

내집마련



자녀교육

자기계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지현 수석연구원
100년 행복연구센터 김혜령 연구위원

생애금융보고서 04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은퇴·내집·자녀·자기계발 4대 인생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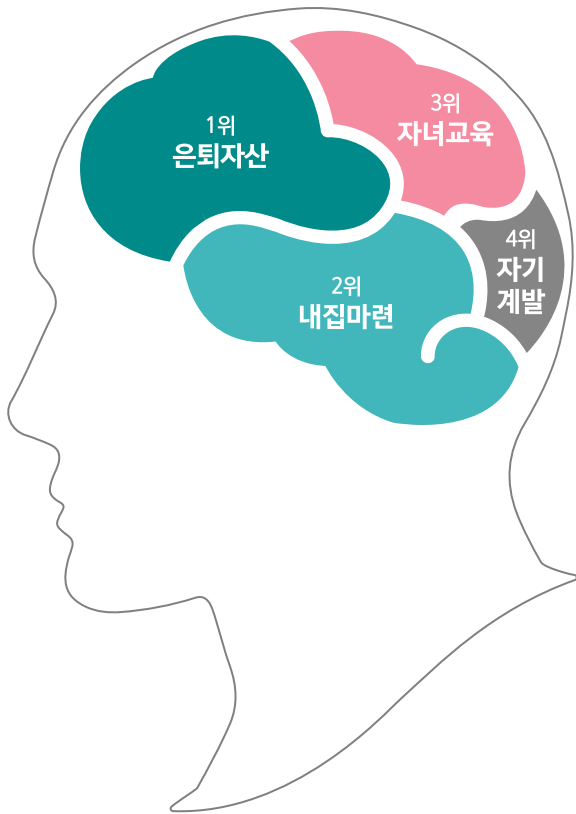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허리 40대, 4대 인생과제에 놓이다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40대(1972년~1981년생)는 대한민국 경제와 가계의 주축이다. 이들은 직장에서 업무의 주축이 되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생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40대, 잠시 뒤돌아보면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동시에 가족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40대, 이들은 ①자기계발 ②자녀교육 ③은퇴자산 마련 ④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4대 인생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각 과제별 실천 현황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00년 행복연구센터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72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4대 인생과제와 경제적 현실을 들여다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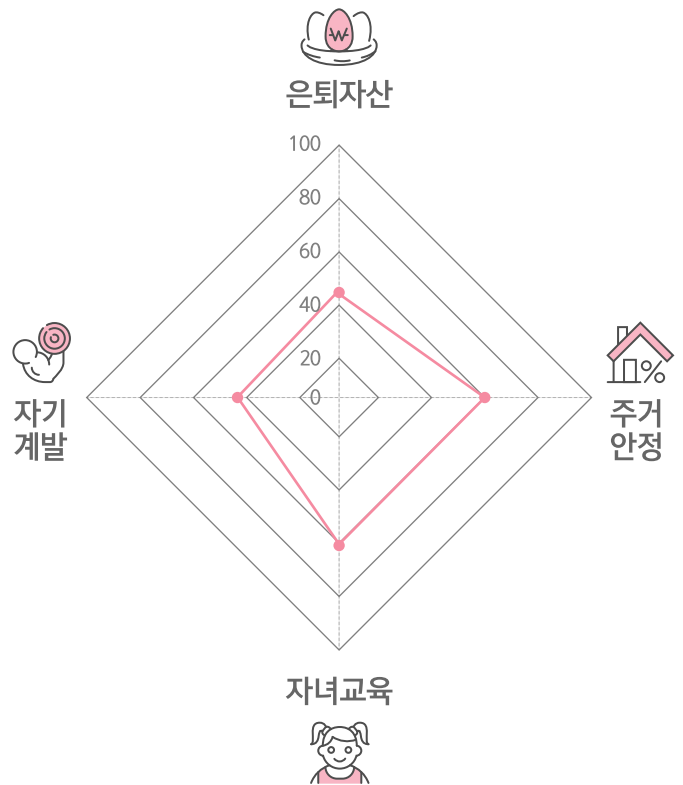
1

인생과제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나?



2

4대 인생과제 중
무엇을 가장 잘해왔나?



은퇴자산 마련

우선순위에서는 1등
그러나
중간점검 결과는 3등

40대는 은퇴자산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인생과제로 보았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때가 온다는 위기감도 있지만, 당장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스스로 부여한 중요도와는 달리 은퇴자산 마련 중간점검 점수는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하다.

40대 중 65%가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월 61만원을 납입한다. 59%는 향후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을 늘릴 계획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액도 커지고 다양한 연금과 금융상품을 활용한다. 40대는 연금·투자·저축·추가소득 만들기 등 다양한 돈 굴리기에 관심이 크다. 은퇴자산 마련에서 어려움을 물어보니,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비 지출'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공백기와 가족의 질병/사고'가 커진다.

주거 안정성 확보

우선순위 2번째
인생과제,
56%가
내 집 마련에 성공

뒤로 미룰수록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주거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다. 그 외 생활권을 안정시키고 싶다는 부분, 당장 전월세 비용이 아까운 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주거 안정성 성취 점수는 59점으로 4개 과제 중 두번째로 높다. 4명 중 1명(25%)이나 스스로에게 80점 이상을 주었다.

56%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주거 관련 대출 활용자는 평균 1억1천만원 대출 잔액이 있다. 전세 거주자 중 대출자의 평균 잔액은 8천만원, 월세는 2천 4백만원이다.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의 60%는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 저축을 필요한 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92%는 주택 구매를 원하며 주택 보유자의 45%는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다. 40대의 대부분이 아직 정착할 내 집을 찾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내 집이 있어도 없어도 집값 걱정은 매한가지다.

자녀교육

중간 점검 점수는
가장 높지만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高

자녀교육만큼은 놓칠 수 없는 것일까? 자녀교육의 중간점수는 63점으로 4대 인생과제 가운데 가장 높다. 27%가 80점 이상을 주었고 6%만이 30점 이하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자녀교육이 최우선 인생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가 뒤쳐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바래서다.

40대 부모 중 88%가 학원을 보내며 평균 월 107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가구소득의 20% 전후에 해당한다. 61%는 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는데,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는 게 가장 크다. 원하는 수준에 비해 교육비가 모자라다는 응답도 많은데,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교육비 부족의 비중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40대 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정해주기보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뒷받침한다는 생각이다. 경제력에 교육이 좌우될까 걱정하기도 하며, 교육을 위한 맞벌이나 투자를 하기도 한다.

자기계발

자격증과
건강 중심으로
소소하게 투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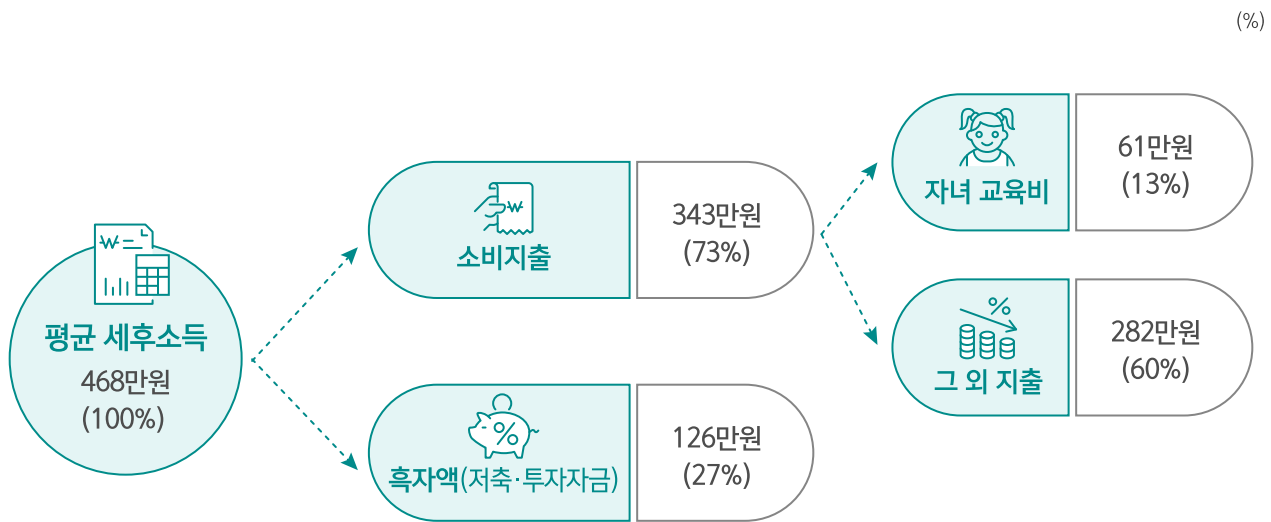
40대에게 자기계발은 후순위다. 그만큼 중간점검 점수도 44점으로 가장 낮다. 그 가운데 자기계발이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현재 직업이 불안하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려는 게 가장 많다. 반면 경제적인 것 보다 자아성취를 찾거나 나중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도 있다.

4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자기계발은 자격증 준비다. 그 다음으로 체력 단련, 재테크 공부, 취미 특기 향상 순이며, 평균적인 자기계발 비용은 평균 월 22만원 정도다.

더불어 40대의 48%가 향후 창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창업 계획까지 수립한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창업을 고려한 사람 중 58%가 창업 자본금으로 1억원 미만을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흥미를 끄는 일 관련 창업이나 봉사를 생각하는 한편 창업 실패에 대한 걱정도 있다.

서울 및 4대 도시의 40대 소득자의 경제적 현실은?

조사대상인 서울 및 4대 광역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40대는 월평균 468만원 세후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소득의 73% 지출한다.



n = 1,000(전체)

40대의 총자산은 평균 4.1억원으로 금융자산은 평균 7천만원이다. 평균적인 가계대출 잔액은 8천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경험자들만 떼어보면 이들의 대출 잔액은 평균 9천4백만원이다. 그 외 신용대출 등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은 평균 5천 9백만원이다.

COVID-19 이후 하위소득 및 무주택 가구에서 대출이 더 많이 증가했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56%가 유주택자인데, 이들 중 81%는 자기소유 주택에 살며, 나머지는 다른 집 전세(9%)나 월세(5%), 부모 집(5%) 등에 살고 있다. 무주택자 가운데에서는 41%가 전세이고, 30%가 월세, 29%가 부모 집에 거주한다.



대한민국 40대 대상 설문조사 개요

성별 및 연령 (명)

성별	남성	여성
40~44세	269	255
45~49세	278	198
전체	547	453

대 상 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 40대 소득자 1,000명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소득구간별 임의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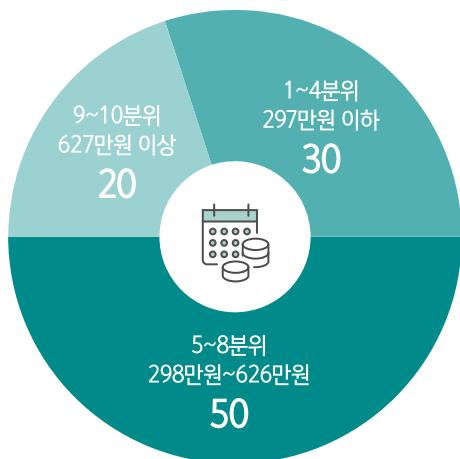
기 간 2020.11월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Focus Group Interview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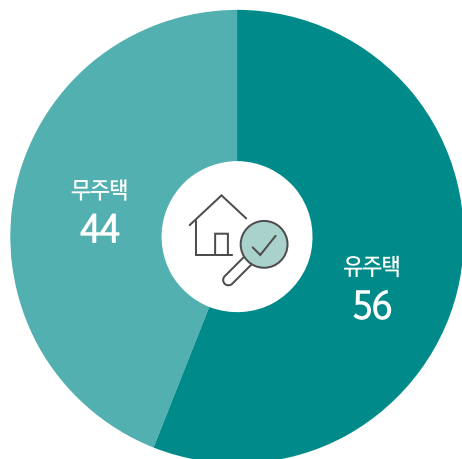
실 행 한국리서치(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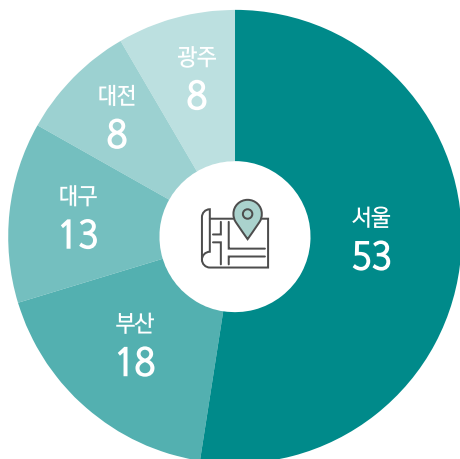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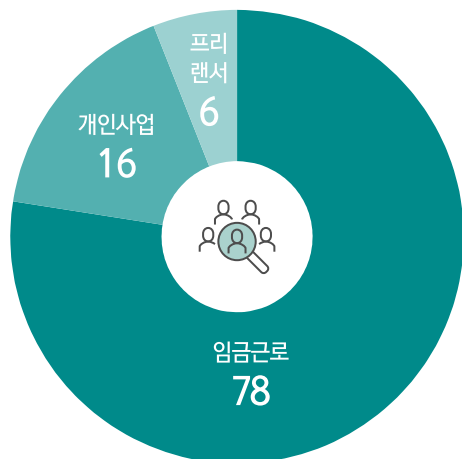
[주택보유 여부]



[거주지역]



[직 업]



n = 1,000(전체)

CONTENTS

01

대한민국 40대의 현실과 4대 인생과제

02

인생과제별 Self 중간평가

[1순위] 은퇴자산 마련

[2순위] 주거 안정성 확보

[3순위] 자녀교육

[4순위] 자기계발

03

40대의 경제생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주택소유와 주거형태





대한민국 40대의 현실과
4대 인생과제

대한민국 40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40대는 1972년부터 1981년에 태어난 이들로
현재 829만명(2020년말 기준)이며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

1972~1981년에 태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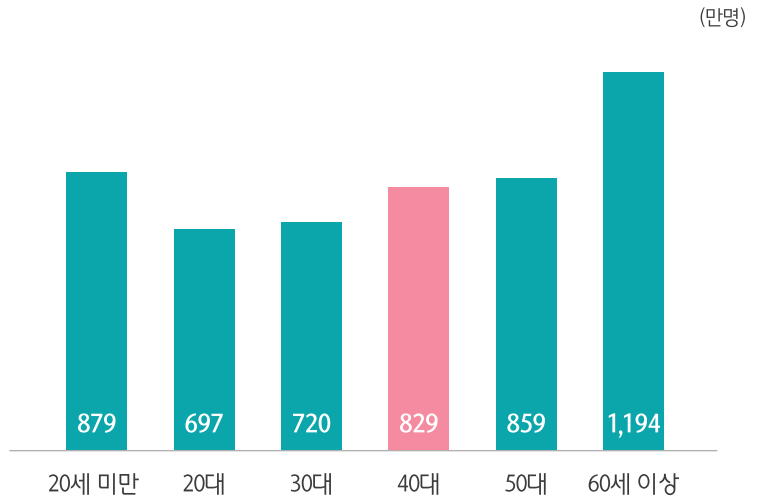


남자 (423만명)
51%



여자 (406만명)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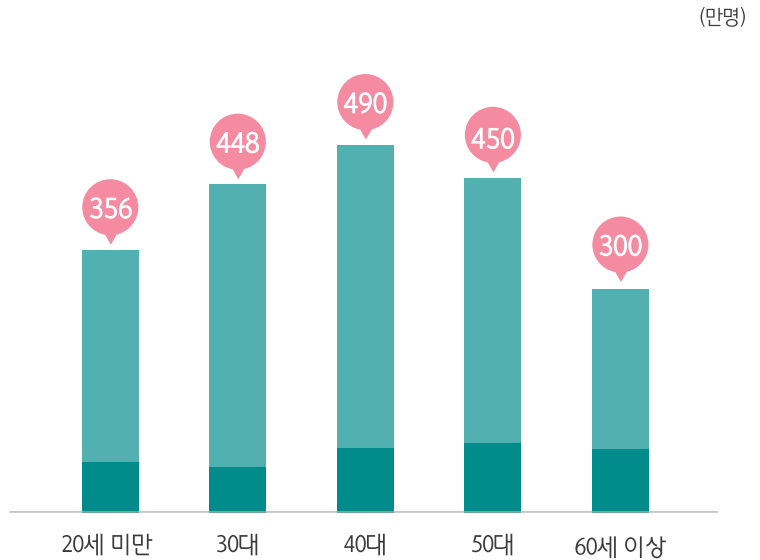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 구성



n = 1,000(전체)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0년 기준

연령별 임금근로자 규모



n = 1,000(전체)

자료: 통계청,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40대의 경제현황

- ▶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후 월 468만원의 소득이 있고 343만원을 지출하여 흑자액은 월 126만원
- ▶ 총자산은 평균 4억1천만원인데 8천만원의 대출이 있어 순자산은 3억 3천만원임
평균적으로 7천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지며 이중 24%가 금융투자상품
- ▶ 조사대상 중 56%는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

40대 나의 경제 현실은?

내 집 보유
56%

세후 월 소득
468만원

총 자산
4억1천만원

월 지출
343만원

대출
8천만원

?
40대 나의
경제 현실은

월 흑자액
126만원

금융자산
7천만원
금융투자자산 24%

n = 1,000(전체)

가장 중요한 인생과제는 ‘은퇴자산 마련’,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자녀교육’

40대에게 4대 인생과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은퇴자산 마련 > 주거 안정성 > 자녀교육 > 자기계발’ 의 순

100년 행복연구센터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40대가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생과제를 제시
40대는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를 케어하면서 재산을 마련하여 미래 안정적인 삶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며, 더불어 수명 연장으로 은퇴시점을 연장하거나 소득을 높이는 등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력 관리도 필요

4대 인생과제의 중요도와 해결(실천) 순위



“4대 인생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1위 | 은퇴자산 마련 42%

2위 | 주거 안정성 확보 36%

3위 | 자녀 교육 16%

4위 | 자기계발 6%



“지금까지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나요?”

1위 | 자녀 교육 63점

2위 | 주거 안정성 확보 59점

3위 | 은퇴자산 마련 45점

4위 | 자기계발 44점

가장 중요한 인생과제로 선택한 이유(각 1위)



은퇴자산 마련

-
금융자산이 부족해서



자녀 교육

-
자녀가 뒤쳐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거 안정성 확보

-
미뤄질수록 내 집 마련 부담 커지기 때문



자기계발

-
현재 직업(소득원)이 불안해서

내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만큼 평가 '은퇴자산 마련'과 '자기계발'을 돌아볼 필요

인생과제별 중간점검(100점 만점 기준)

“지금까지 00을 잘 하고 있으며,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0점: 매우 못했다, 100점: 아주 잘해왔다)

	평균 점수	부담 규모 ^{주)}	80점 이상 우등생 비중
은퇴자산 마련	45점	61만원	9%
주거 안정성 확보	59점	75만원	25%
자녀교육	63점	107만원	27%
자기계발	44점	22만원	8%

주: 은퇴자산 마련 저축, 학원비 등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 평균 부담금액으로, 주거 안정성의 경우 유주택자의 주거관련 대출상환액을 기준으로 함



- ☑ 65%가 은퇴자산 위해 저축 중 / 58%는 앞으로 저축 늘리겠다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유

- 소득이 높을수록 ▶ 주택 마련과 자녀교육비 지출로
- 소득이 낮을수록 ▶ 소득 공백기와 가족의 질병/사고 때문에



- ☑ 56%가 유주택자, 전세살이는 18%, 월세는 13% 차지, 나머지는 부모 집 등
- ☑ 주택담보 및 보증금 대출 보유자의 60%는 대출상환액이 부담스럽다
- ☑ 무주택자의 92%는 주택구매 계획, 유주택자 중 45%도 '더 나은 집 찾겠다'



- ☑ 자녀가 있는 40대 중 88%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며, 61%는 사교육이 '부담스럽다'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이유

-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 ▶ 교육비가 부족하다 ▶ 대출관리가 어렵다



- ☑ 10명 중 7명은 자격증·체력관리·재테크 등 소소하게나마 자기계발중...
- ☑ 자기계발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흥미나 자기만족, 일하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고용불안 및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점도 있음



인생과제별 Self 중간평가

[1순위] 은퇴자산 마련

[2순위] 주거 안정성 확보

[3순위] 자녀교육

[4순위] 자기계발

[1순위] 인생과제 은퇴자산 마련

“

생각은 항상 하는데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연금, 보험 10년 전에 들어 놓은 거 말고
딱히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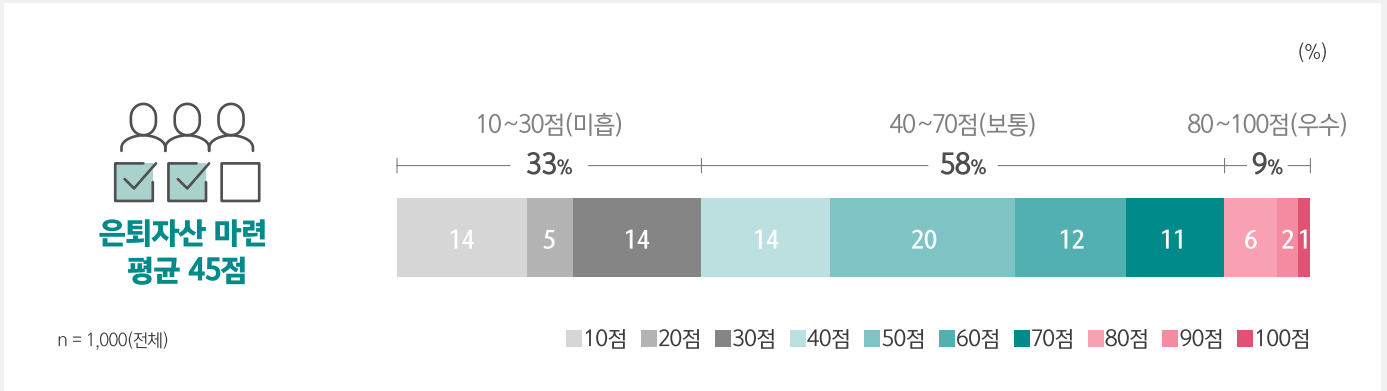
”

은퇴자산 마련이 당장 최우선 인생과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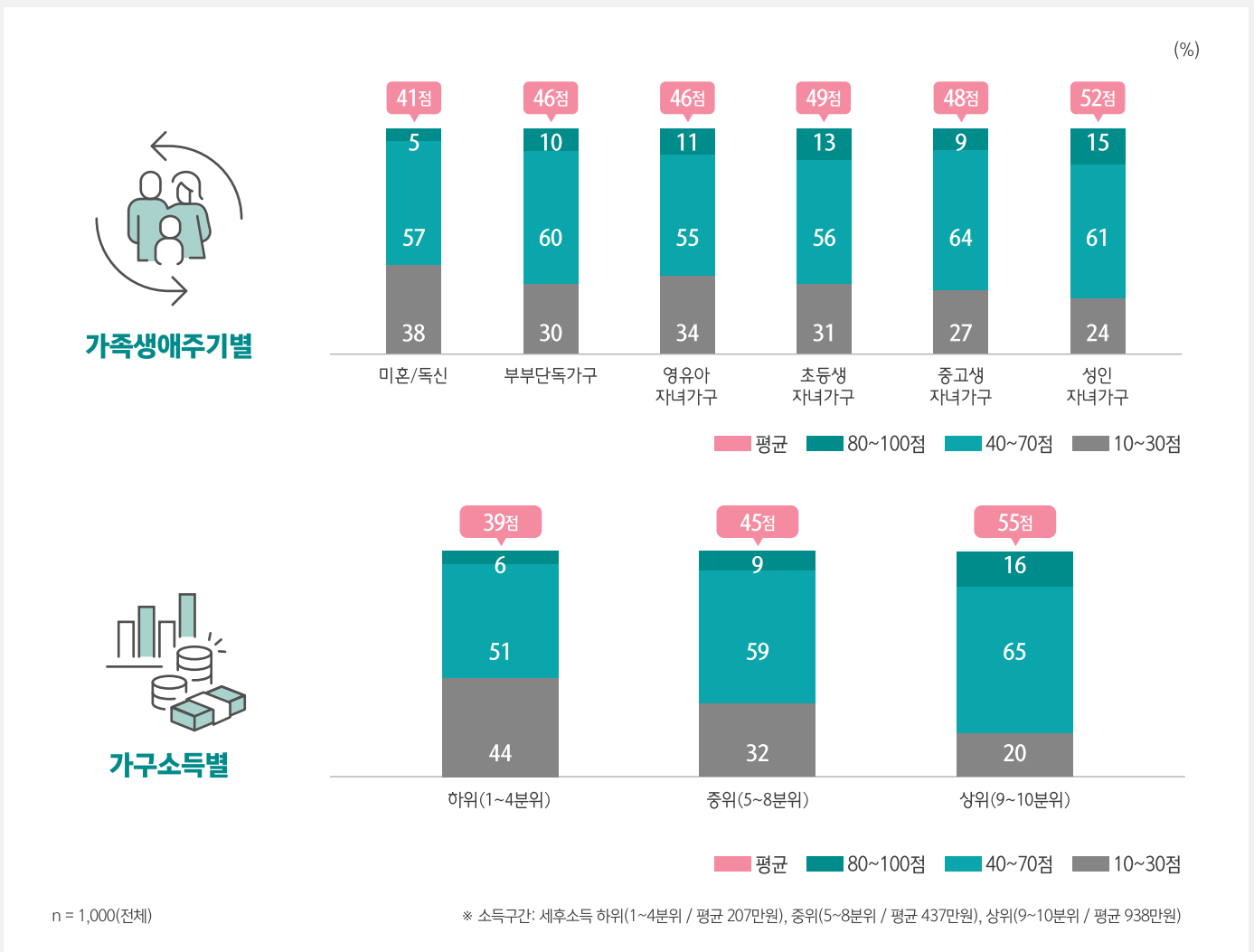
- [1위] 모아놓은 금융자산이 부족하다 41%
- [2위] 일(경제활동)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0%
- [3위] 은퇴자산 준비에 관한 교육(정보)를 받았다 13%
- [4위] 현 직장에서 퇴직할 때가 되어 간다 4%
- [5위] 주변 동료 또는 지인들이 조언한다 2%

1순위 인생과제 「은퇴자산 마련」 중간평가 45점

▶ 40대가 스스로 평가한 은퇴자산 마련 과제 해결수준은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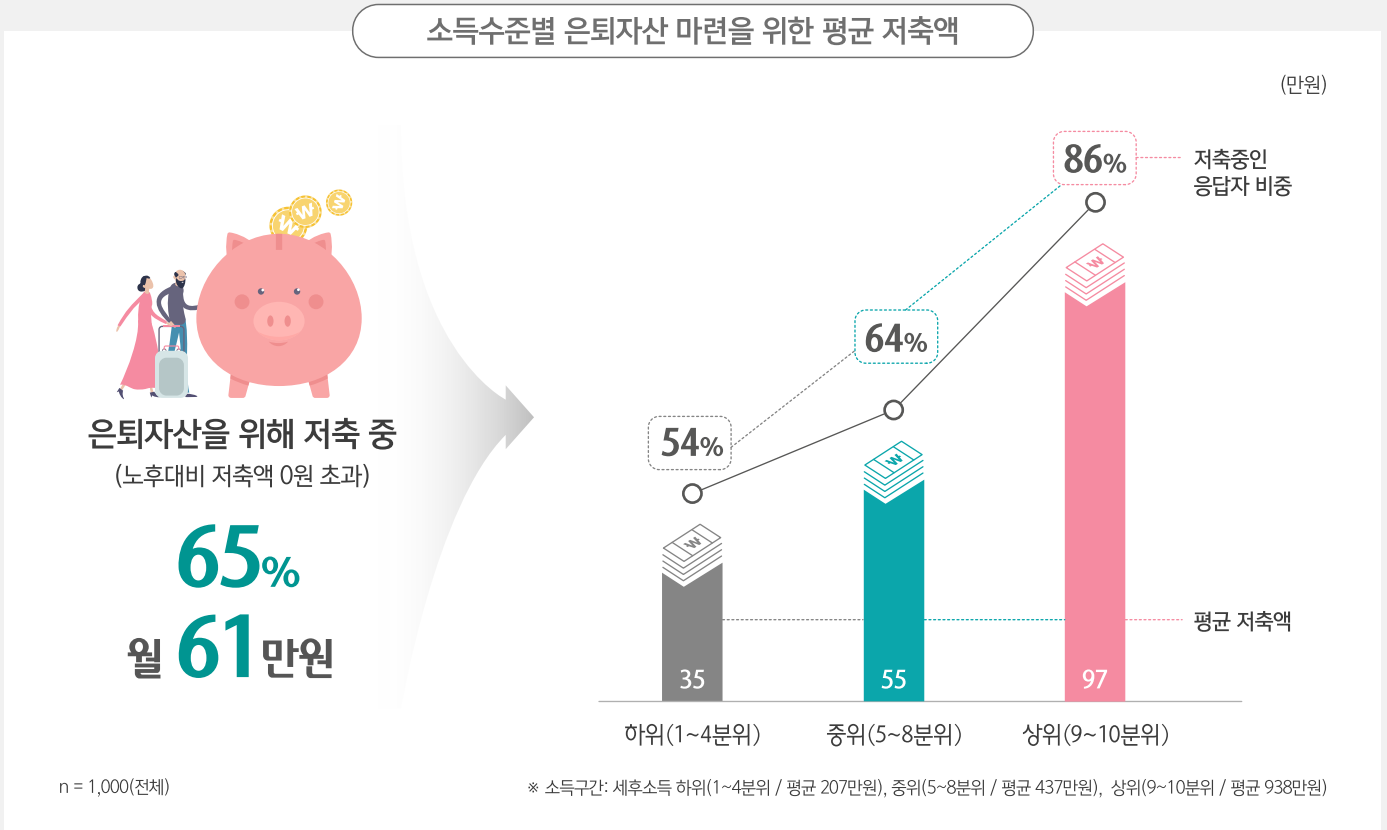


▶ 자녀가 성인인 가구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 점수가 미미하게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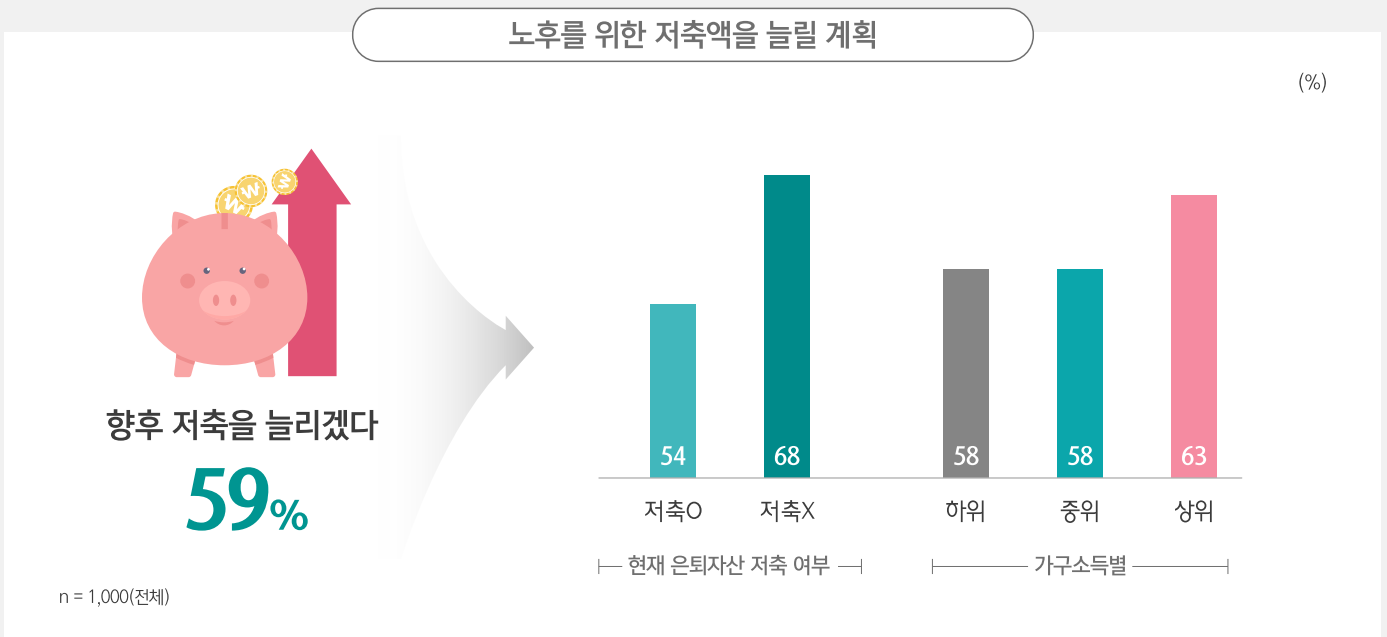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평균 월 61만원 저축

- ▶ 40대 조사대상 중 65%가 노후자금을 저축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저축액은 월 61만원으로 집계
- ▶ 하위소득 가구의 경우 절반(54%)만이 은퇴자산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저축액은 평균 월 35만원으로 나타남



- ▶ 전체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59%)이 노후를 위한 저축을 늘릴 예정
- ▶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을 하지 못하는 40대 중 68%가 향후에는 저축을 늘릴 계획



은퇴시점까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자산은 평균 2억9천만원(현재가치)

-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은퇴시점까지 모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노후자금 규모가 커짐
- ▶ 가족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가구일 때 예상 자금이 가장 많고 자녀 학령기가 높을수록 줄어들음

은퇴시점까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균 노후자금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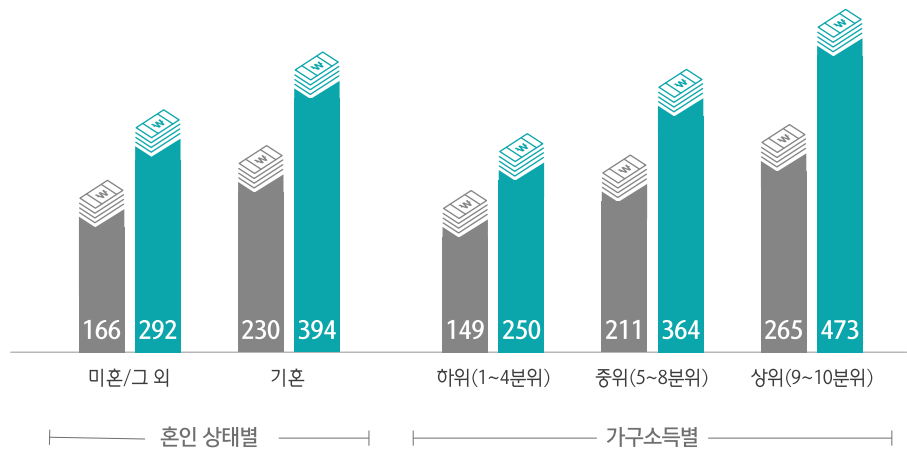
	가구소득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
예상 은퇴자산	1억8천만원	2억6천만원	5억3천만원
현재 세후소득	207만원	437만원	938만원

	가족 생애 주기					
	미혼 /독신	부부 단독가구	영유아 자녀가구	초등생 자녀가구	중고생 자녀가구	성인 자녀가구
예상 노후자금	2억8천만원	3억1천만원	3억5천만원	2억9천만원	2억7천만원	2억원
현재 세후소득	343만원	550만원	539만원	539만원	536만원	558만원

n = 1,000(전체)

40대가 바라는 은퇴시점과 노후 생활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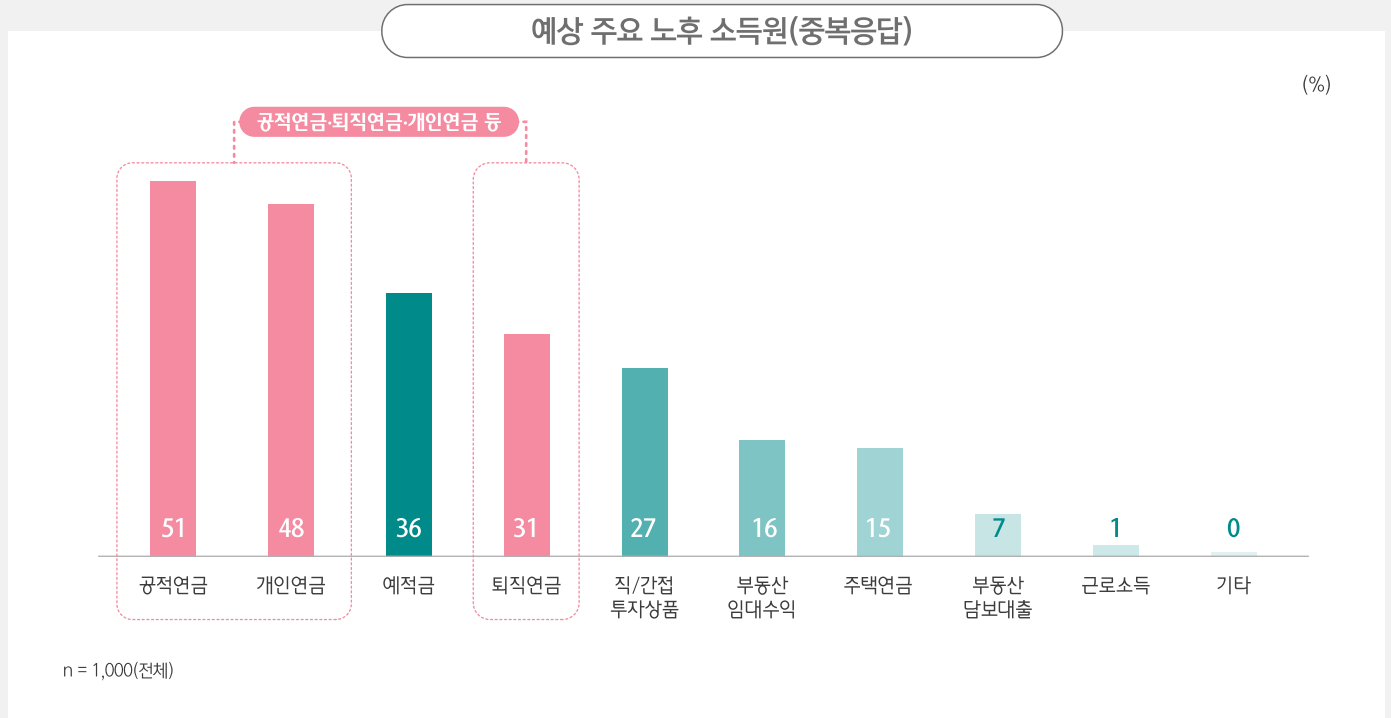


n = 1,000(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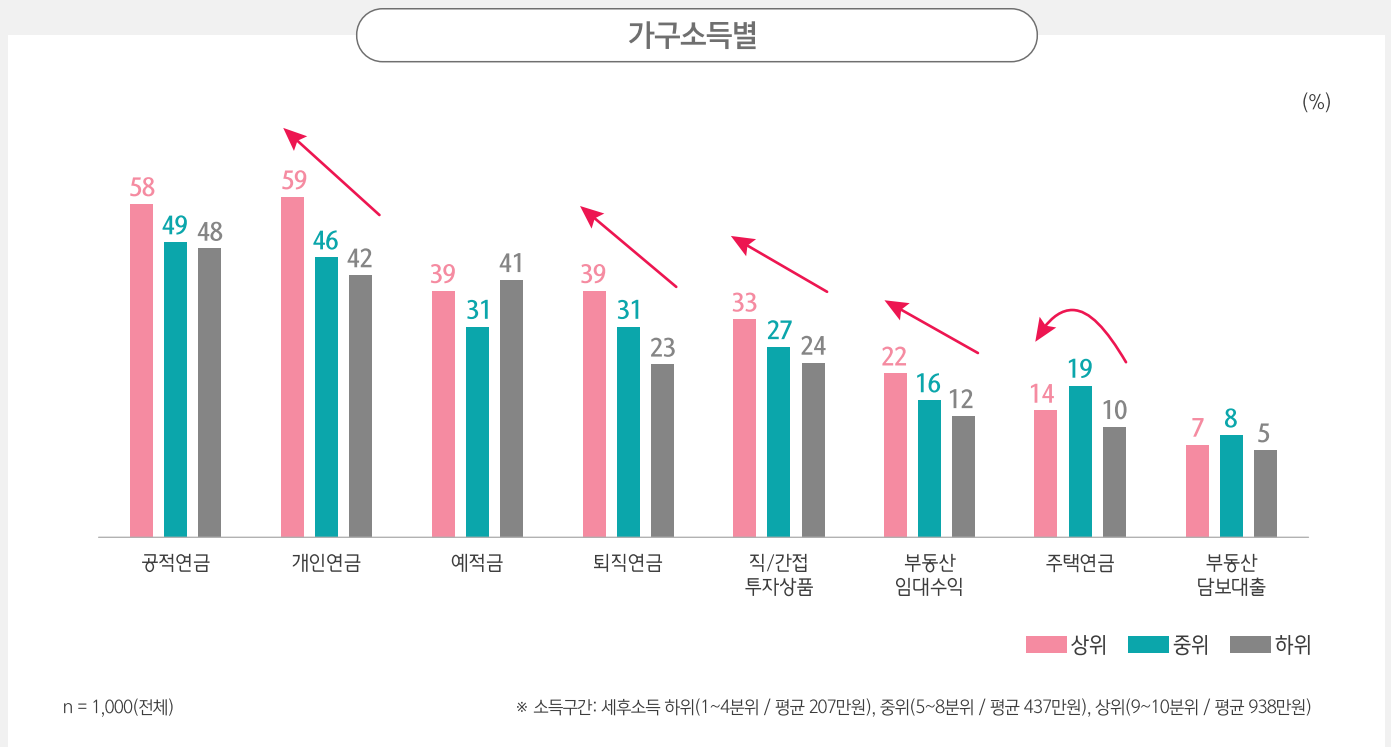
■ 필수생활비 ■ 충분생활비

40대가 예상하는 주요 노후소득원

- ▶ 공적연금 외에 40대가 예상하는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 및 보험, 48%), 예적금(36%), 퇴직연금(31%),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상품(27%)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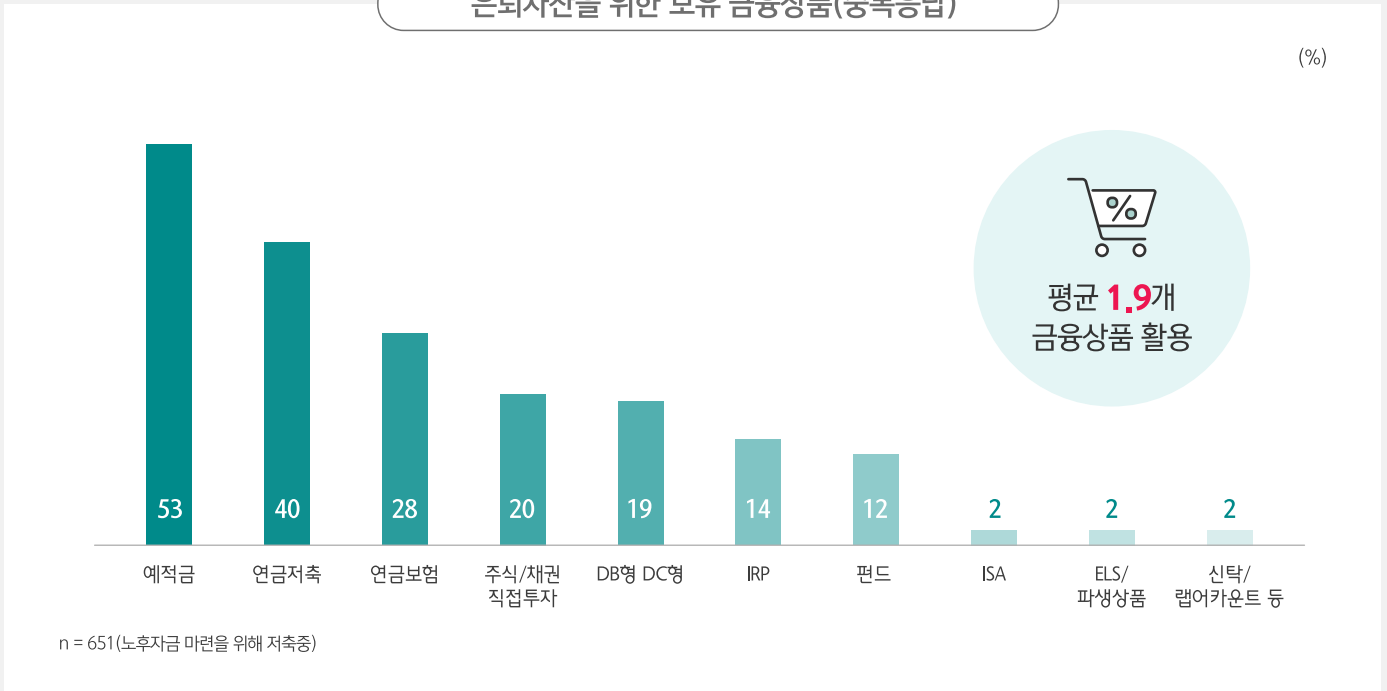
-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상품을 주요 소득원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늘어남
- ▶ 중위소득가구가 주택연금을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가장 많이 예상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연금과 금융상품 활용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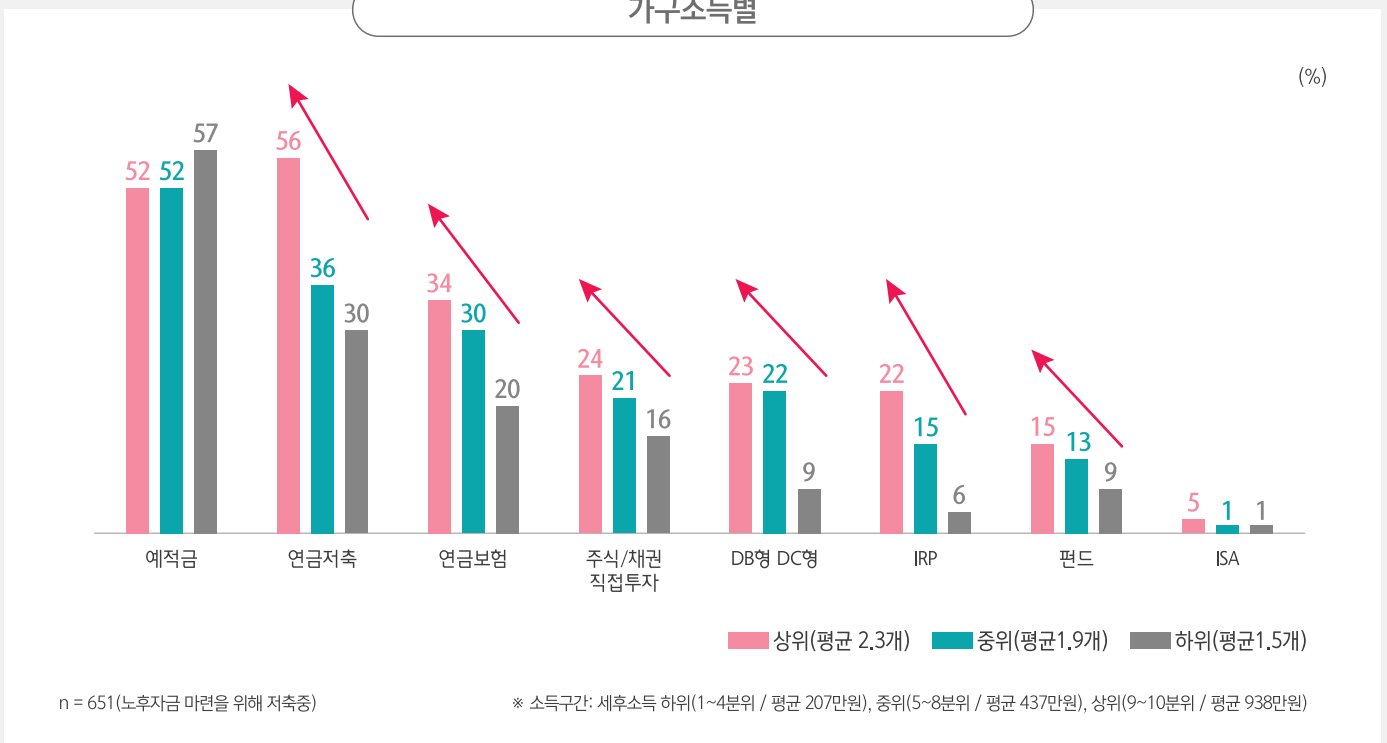
- ▶ 은퇴자산 마련 수단으로 활용중인 금융상품을 물어본 결과, 예적금(53%) > 연금저축(40%) > 연금보험(28%) 순이었으며, 평균적으로 1.9개 금융상품을 활용중

은퇴자산을 위한 보유 금융상품(중복응답)



- ▶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식/채권 직접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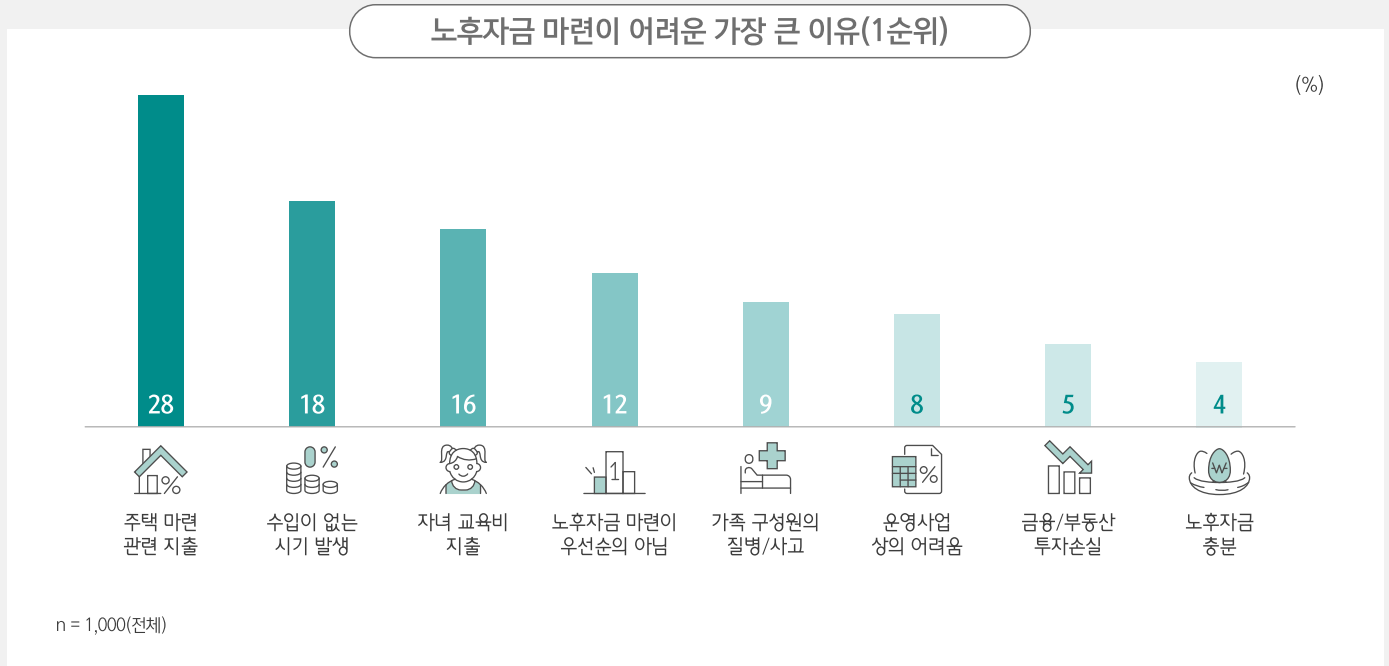
가구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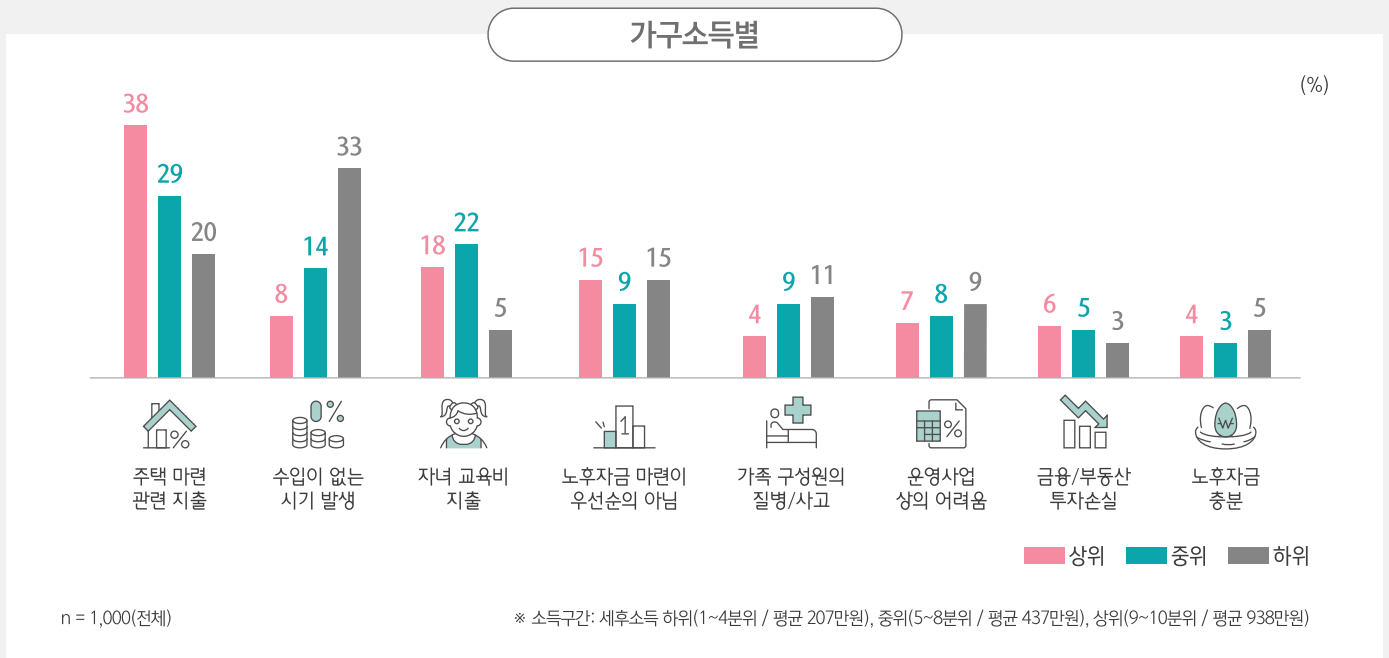
은퇴자산 마련이 어려운 이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백기와 가족 질병/사고' 때문

- ▶ 전체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주택마련 관련 지출(28%) > 수입이 없는 시기 발생(18%) > 자녀교육비 지출(16%)임
- ▶ 노후자금 마련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나(12%), 이미 노후자금이 충분한 경우(4%)도 있음



- ▶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지출'
- ▶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적 환경적 이유로 인한 '소득공백', 그리고 '가족의 질병과 사고'가 늘어남



‘40대, 계획이 다 있구나!’

연금·투자·저축·추가수입 돈 굴리기 방법에 관심 엿보여



연금제도 활용

연금저축 비과세, 노후자금 충당용으로 했지만, 퇴직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잘했다 생각해요.

국민연금을 연장해서 더 받도록 하고, 실손 의료비랑 건강보험, 100세 만기형 보험 등을 활용중이에요.

부동산은 달랑 1채이기에 웬만하면 안 건들고 싶어요. 추후에 필요하면 최후의 보루로 주택 연금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투자에 관심

적금 대신 P2P 도 하고 있어요.

존 리 얘기를 듣고 중장기로 주식 투자중이에요.

장기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부중이에요.

10억 모으면, 연 5% 수익률 목표 잡고 주식이든 배당이든 하면 월 500정도 나오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허리띠 졸라매기

파이어족 이에요.
모든 수익의 70%를 저축하고 30%는 생활비로 지출하며, 생활비용 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해요.



추가 수입 창출

저작권료 등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중 이에요.

직장생활 하며 짬짬이 파트로 교육원이나 학교 등에서 강의 중이에요.

[2순위] 인생과제

주거 안정성 확보

“

정착할 집 찾는 주택 노마드族

무주택자, ‘집 값 부담스럽지만 내 집 갖겠다’
유주택자 중 절반은 ‘더 나은 집 찾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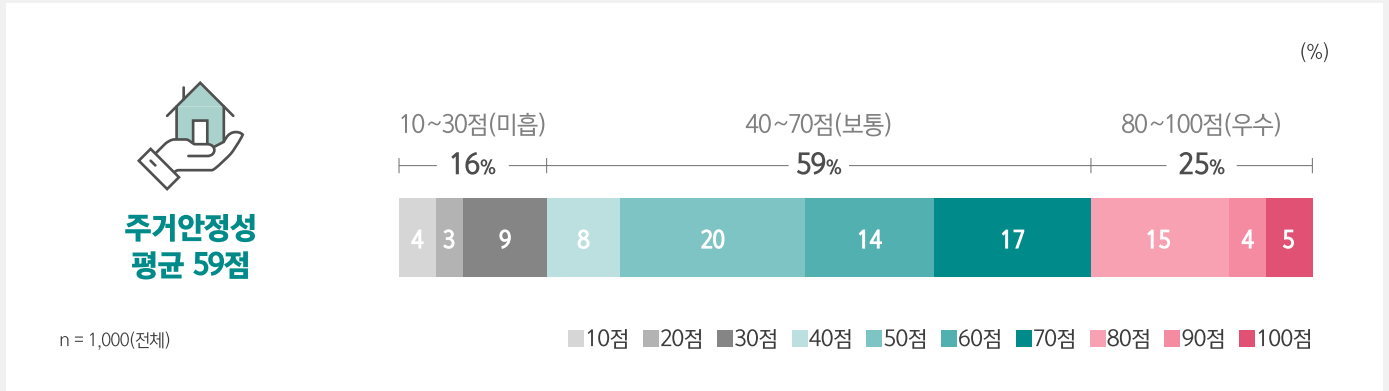
”

주거 안정성 확보가 당장 최우선 인생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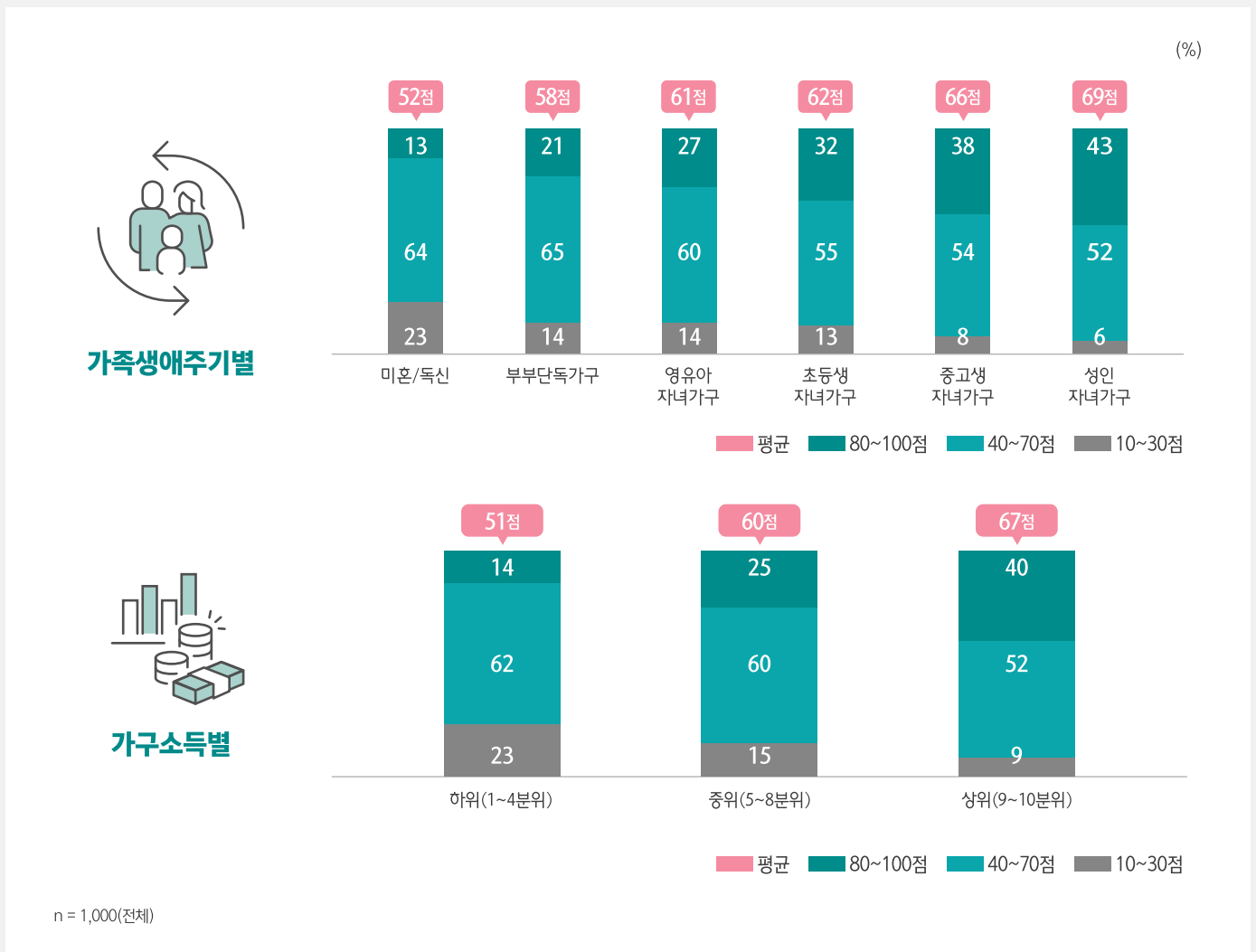
- [1위] 나중으로 미룰수록 내 집마련 부담이 커질 것 같다 46%
- [2위] 나와 가족의 생활권을 안정시키고 싶다 27%
- [3위] 당장 전월세 비용이 아깝다 13%
- [4위] 주택가격이 상승해 가계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10%
- [5위] 임대계약 따라 자꾸 이사하는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 4%

2순위 인생과제 「주거 안정성 확보」 중간평가 59점

▶ 40대 중 25%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 과제에서 8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30점 이하로 미흡하다고 본 경우는 1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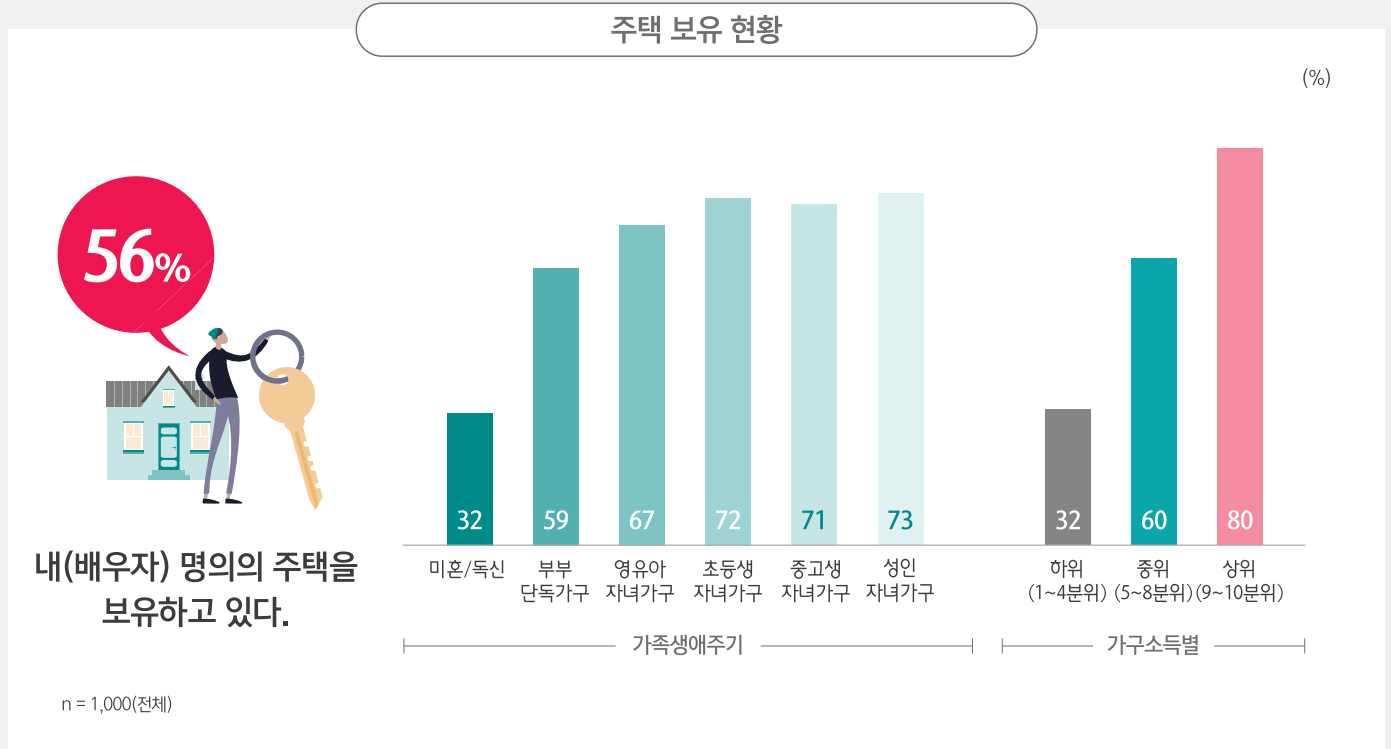


▶ 가족생애주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안정성 점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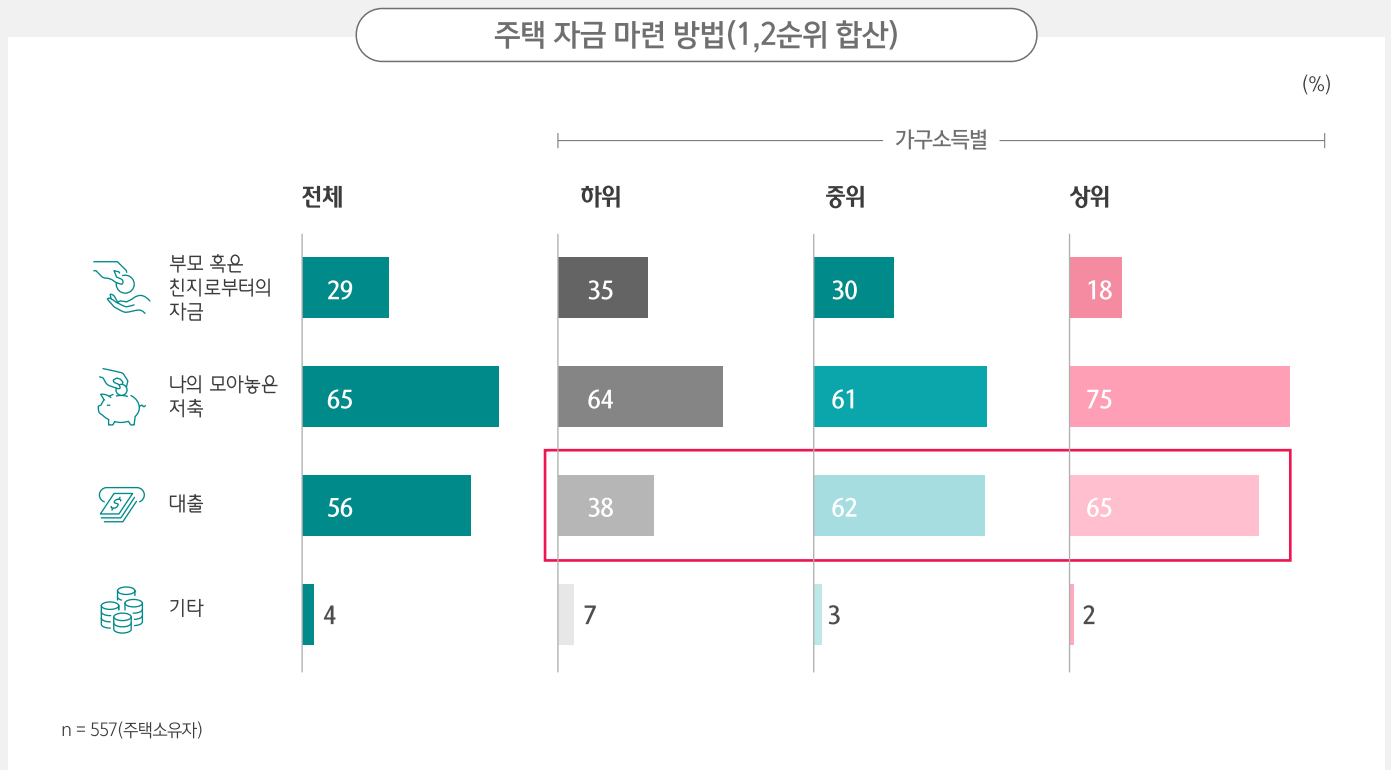


40대의 절반 이상(56%)이 주택 보유

▶ 가족생애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택소유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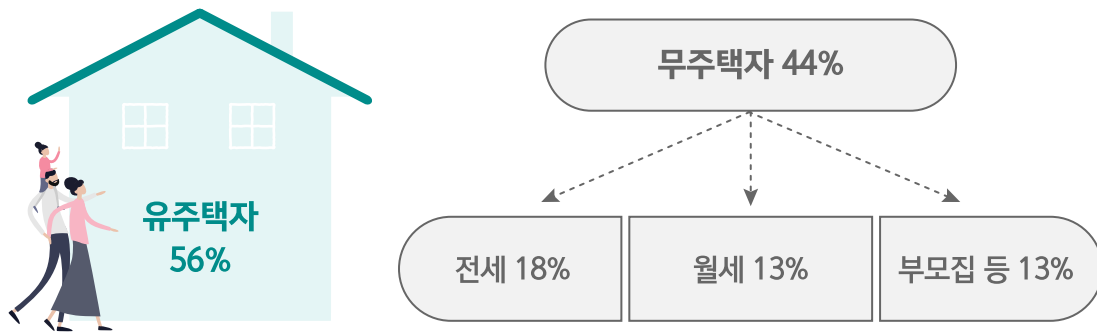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활용률이 높아지는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 친지로부터의 자금지원의 비중이 높아짐



주거 관련 대출, 유주택자는 평균 1억 1천만원, 무주택자는 6천만원

- ▶ 주거관련 대출상환금은 유주택자의 경우 평균 월 75만원, 무주택자 가운데 전세 살 경우 평균 월 47만원, 월세일 때는 59만원으로 집계

유주택자 비중 및 무주택자의 주거형태



n = 1,000(전체)

유주택자 및 무주택자 주거형태별 주거관련 대출 현황

	유주택자	전세 거주자	월세 거주자
주거관련 대출경험	65%	73%	56%
대출잔액 평균	1억 1천만원	8천만원	2천 4백만원
평균 월 상환액	75만원	47만원	59만원
월 상환액 부담스럽다	56%	60%	77%

n = 871(유주택 또는 전월세 거주자)

주거 관련 대출 보유자의 60% 대출상환액이 부담스럽다

▶ 대출상환액이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한 만큼 저축을 못하거나'(68%)
대출 원금상환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등, 대출관리가 어렵다(34%)는 것

주택 대출 상환액이 부담스러운 이유(1+2순위)



주거관련 대출상환
부담된다

n = 413(대출잔액 있는 자)

-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못한다 68%
- 계획했던 대출 원금상환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34%
- 원하는 만큼 외식이나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 26%
- 자녀교육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못한다 19%
- 먹는 거 나 입는 것 등 필수 생활비를 줄였다 18%
- 나 또는 배우자의 자기계발에 쓰일 돈을 줄이거나 포기했다 15%
- 부모봉양이나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지출을 하지 못한다 13%

n = 248(대출잔액 부담스럽다 응답자)

▶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저축할 자금과 자녀교육비가 모자라다는 응답이 늘어남

학령기 자녀 가구의 대출 상환액이 부담스러운 이유

(%)

	영유아 자녀	초등생 자녀	중고생 자녀
■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못한다	56	77	71
■ 계획했던 대출 원금상환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28	32	29
■ 원하는 만큼 외식이나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	30	22	22
■ 자녀교육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못한다	22	29	29
■ 먹는 거 나 입는 것 등 필수 생활비를 줄였다	28	15	9
■ 나 또는 배우자의 자기계발에 쓰일 돈을 줄이거나 포기했다	22	13	16
■ 부모봉양이나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지출을 하지 못한다	8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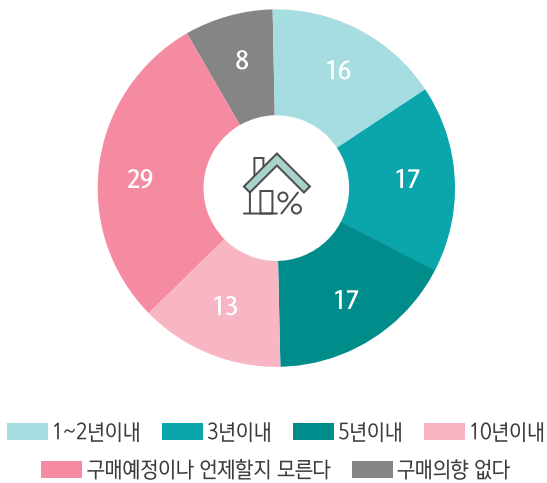
n = 248(대출잔액 부담스럽다 응답자)

무주택자의 92%는 ‘주택을 사겠다’

주택 구매 희망자 중 64%는 매월 36만원씩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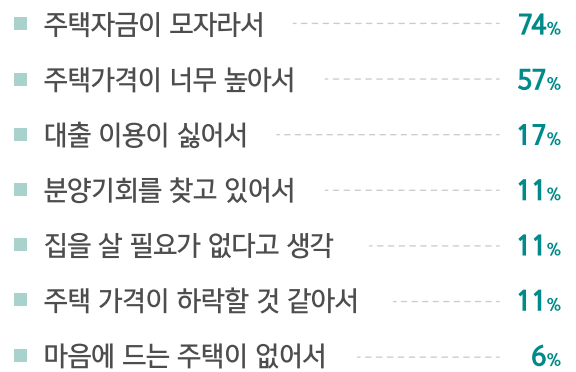
- ▶ 무주택자 3명중 1명(33%)은 3년 내 주택구매를 희망
- ▶ 무주택자 대부분은 자금이 모자라거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구매하지 않았다고 답함

주택 비보유자의 향후 주택 구입 의향



n = 443(무주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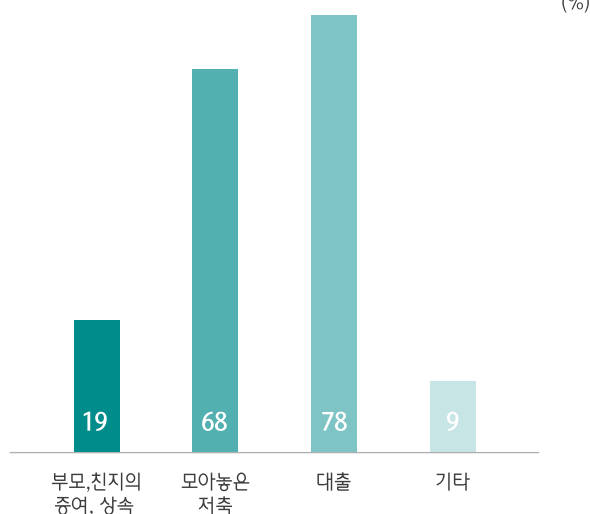
주택을 사지 않았던 이유(1,2순위 합산)



n = 407(무주택자 & 주택구매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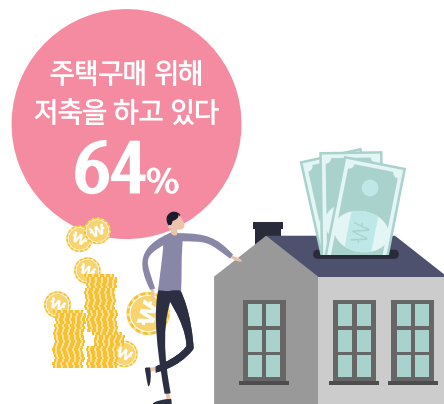
- ▶ 주택구입 의향이 있는 40대의 64%는 주택마련을 위해 평균 월 36만원을 저축중

향후 주택 자금 마련 계획(1,2순위 합산)



n = 407(무주택자 & 주택구매 희망자)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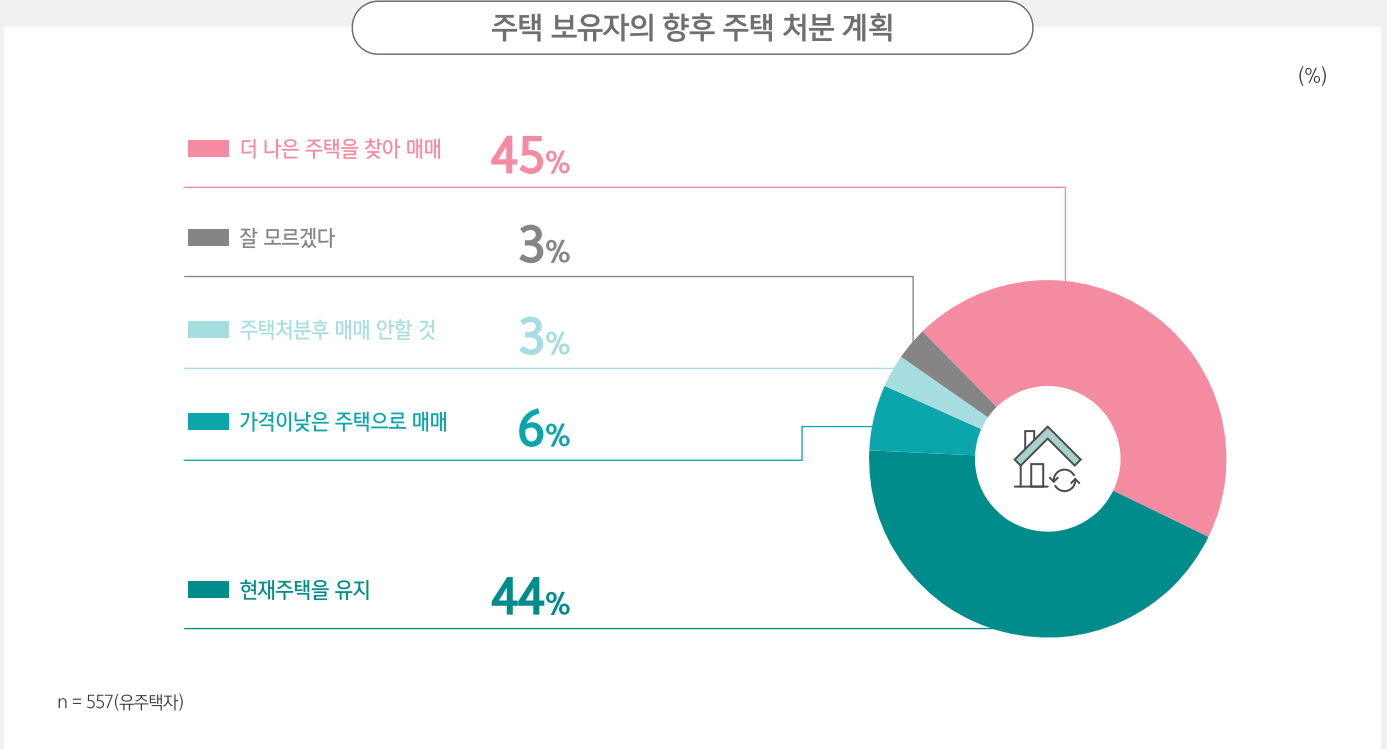


[평균 저축액 월 3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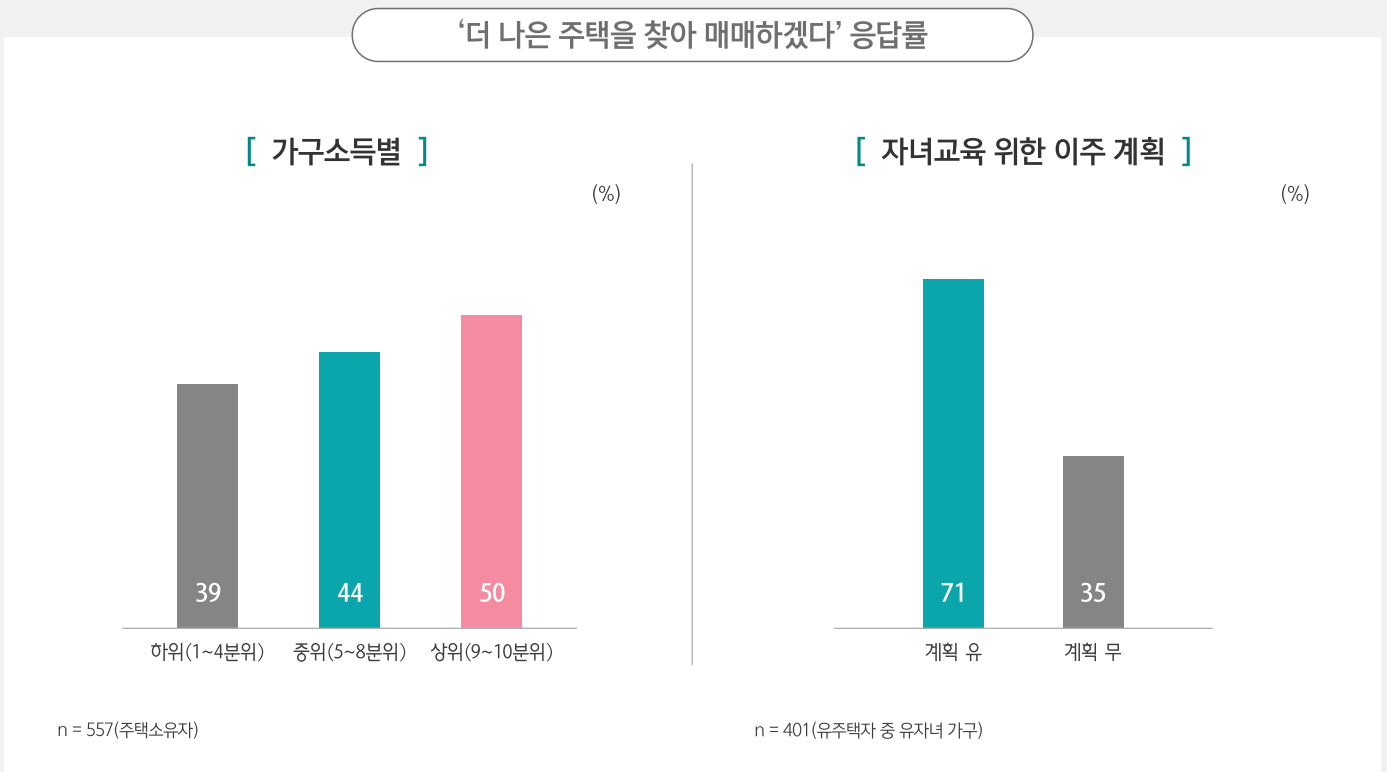
n = 407(무주택자 & 주택구매 희망자)

유주택자의 45% '더 나은 집을 찾겠다'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나은 주택을 찾겠다'는 응답이 늘어남



▶ 자녀교육을 위한 이주 생각이 있는 경우 더 나은 주택을 찾을 의향이 높음



내 집이 있어도 없어도 집 값 걱정은 매한가지



유주택자

주거 안정성이라는 게
단순히 내 집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희 집도 많이 올랐어요.
저는 집 한 채 인데 솔직히,
집 한 채로 부를 이룰 것도 아니고
그냥 살 거니까...

세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년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
이사 가고 싶어도 못가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추세예요.



무주택자

집 사고 싶으나 가격이 너무 높아
포기했어요.

서울 밖에 집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오려면 작은 평수로 와야 하고,
돈 차이가 너무 커서
잘 못오는 듯해요.

지나가 보니
내집 마련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뉴스 자체를 안 보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뉴스를 안 보려고 하기도 해요
스트레스 안 받게...



[3순위] 인생과제 자녀교육

“

4대 인생과제중
가장 높은 성취도 평가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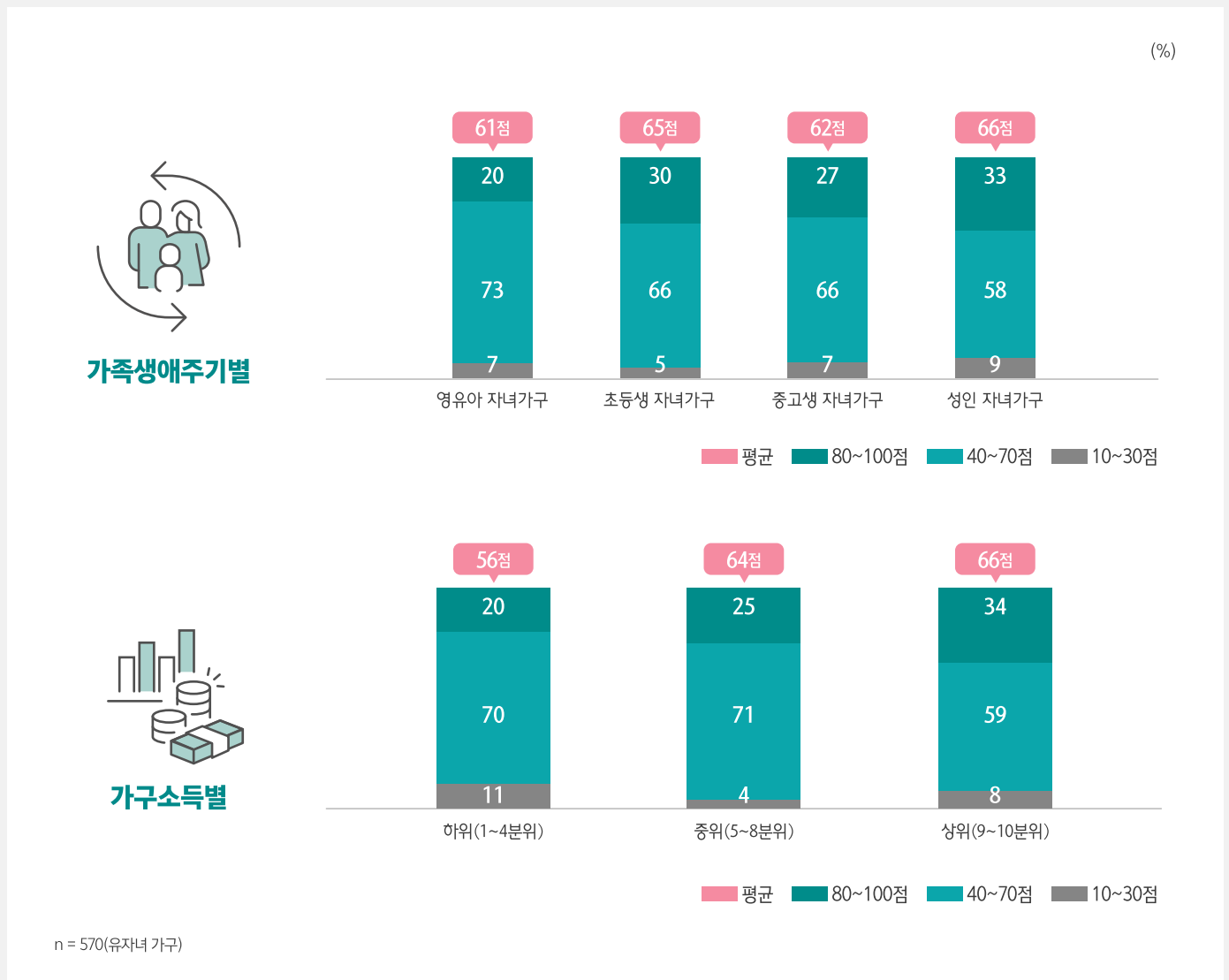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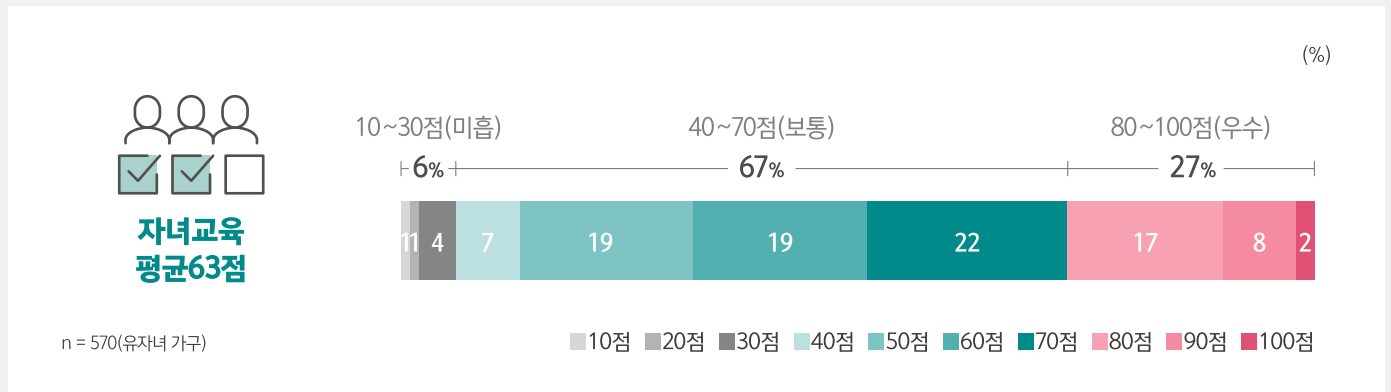
자녀교육이 지금 최우선 인생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1위] 자녀가 뒤쳐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54%
- [2위] 자녀가 나만큼, 그 이상의 성취를 하는데 교육이 중요해져서 23%
- [3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경제적으로 내게 의지하지 않도록 18%
- [4위] 자녀의 학업성취가 내(배우자)의 자랑으로 여겨져서 5%
- [5위] 부모가 나에게 해준만큼 나도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 1%

3순위 인생과제 「자녀교육」 중간평가

63점으로 최고점수

▶ 자녀교육에서 낙제점(30점 이하)이라고 평가한 40대는 6%에 불과, 27%가 '자녀교육 잘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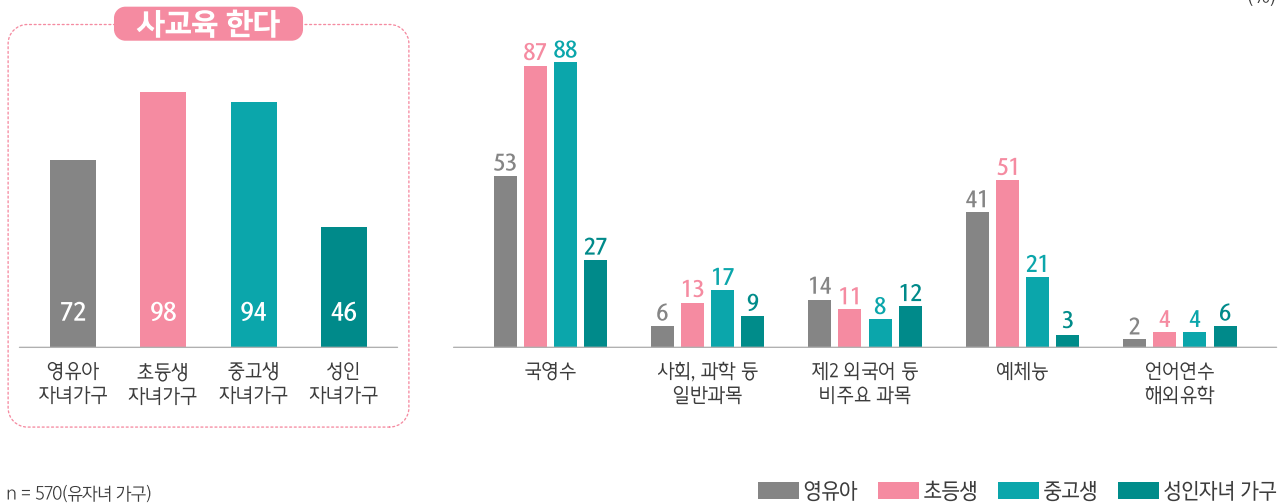


40대 중 88%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며 평균 월 107만원 지출

▶ 사교육 비중은 초등자녀 > 중고생자녀 > 영유아 자녀 > 성인자녀의 순
초등자녀는 국영수와 예체능까지, 중고등자녀일 때 예체능 교육은 줄어들어

자녀 사교육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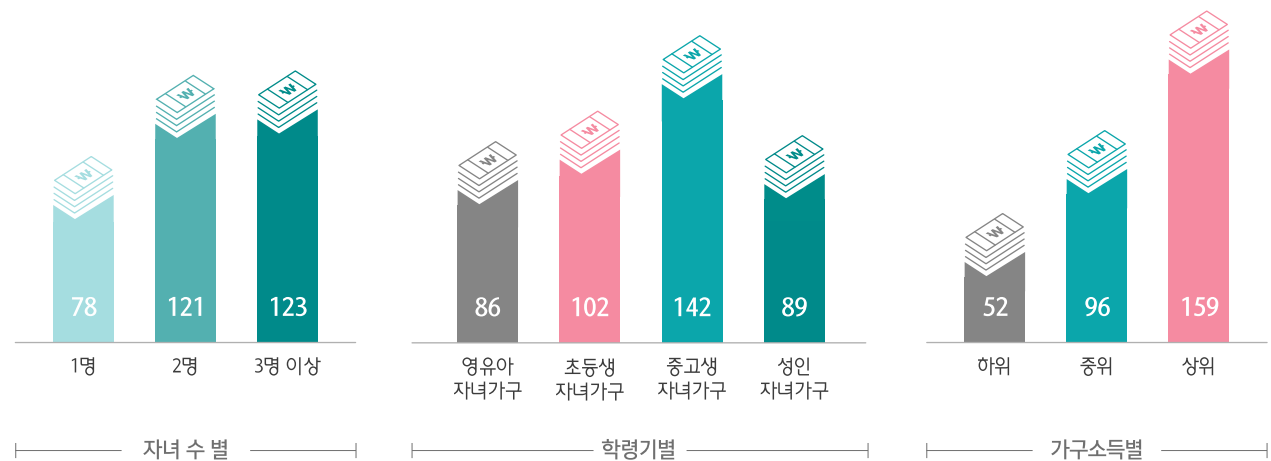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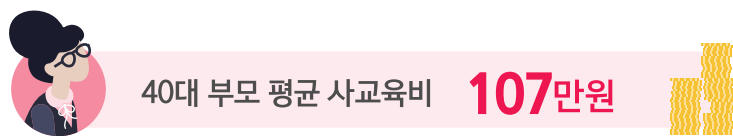
(%)



▶ 사교육비는 대학입시에 가까워질수록, 자녀가 늘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

월평균 자녀 교육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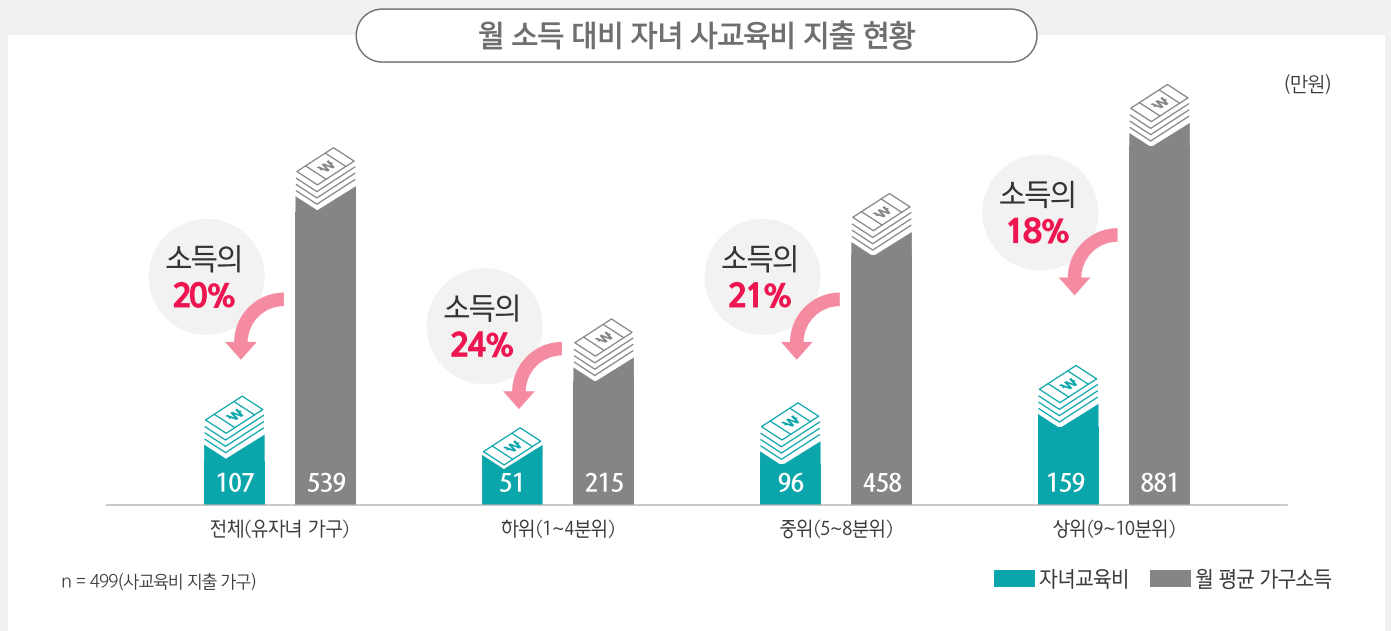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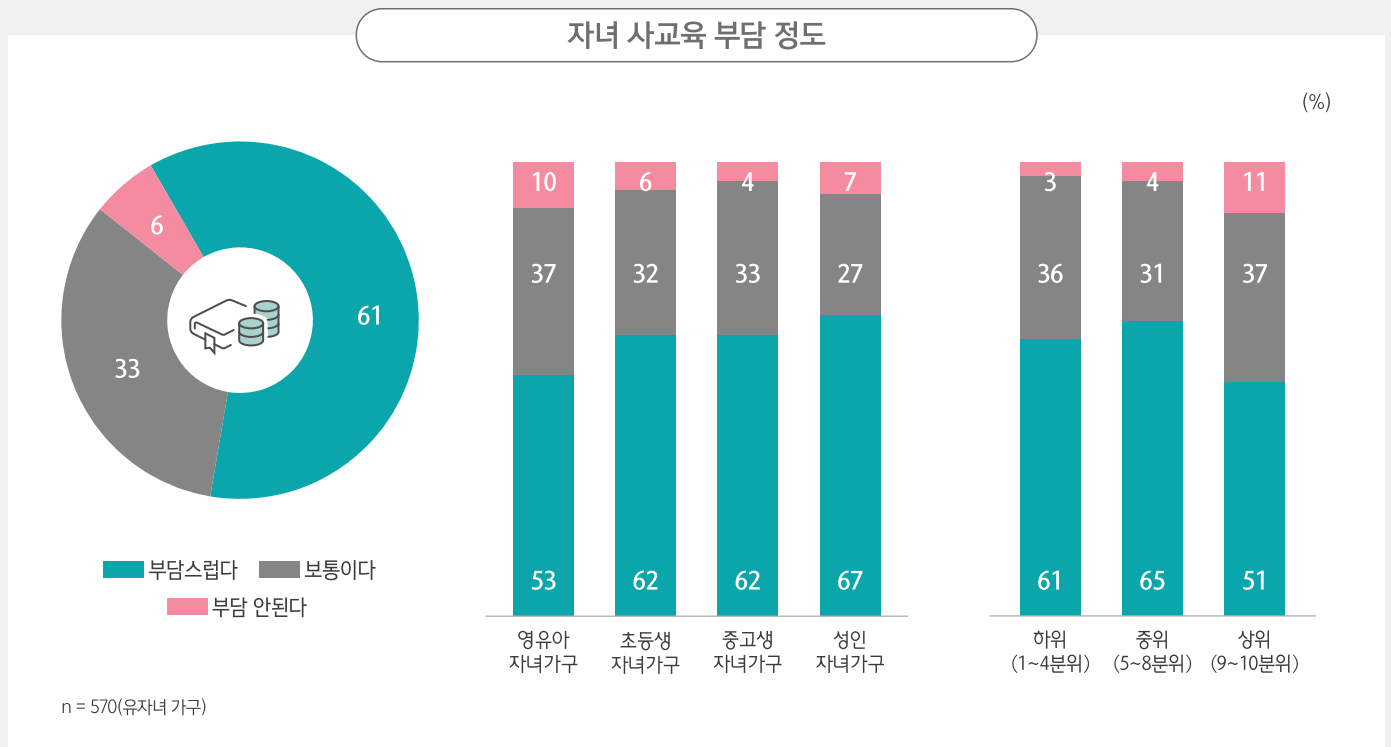
n = 570(유자녀 가구)

월소득의 20%를 차지하는 자녀교육비, 61%는 '부담스럽다'

▶ 40대의 자녀 사교육비는 월 가구소득의 20% 내외로 나타나 전 소득계층에 걸쳐 자녀교육비는 상당히 중요한 지출 항목



▶ 사교육비 부담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며, 상위소득가구(9~10분위)도 절반(51%) 이상이 자녀교육비에 부담스럽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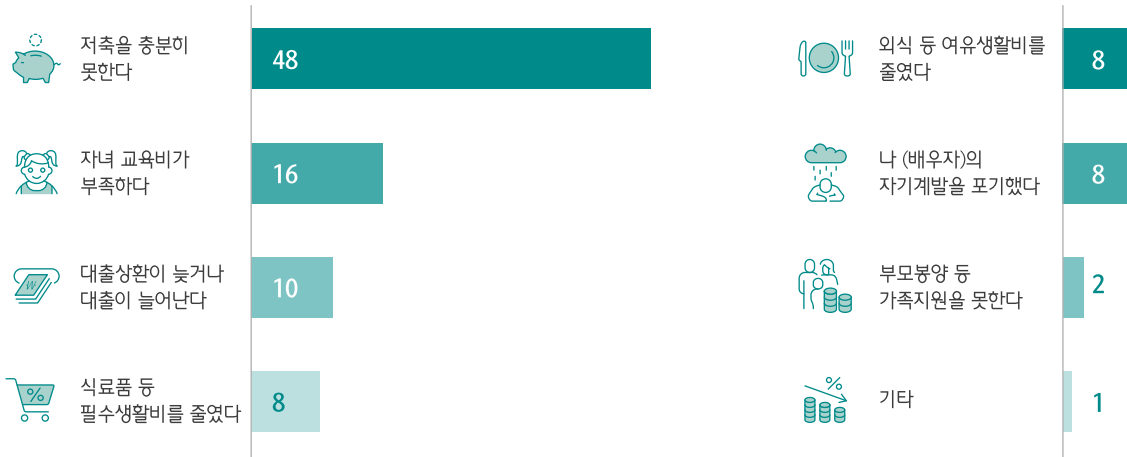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저축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어려움

▶ 사교육비가 부담 되는 이유는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48%) > 교육비가 부족(16%) > 대출상환이 늦거나 대출이 늘어난다(10%)’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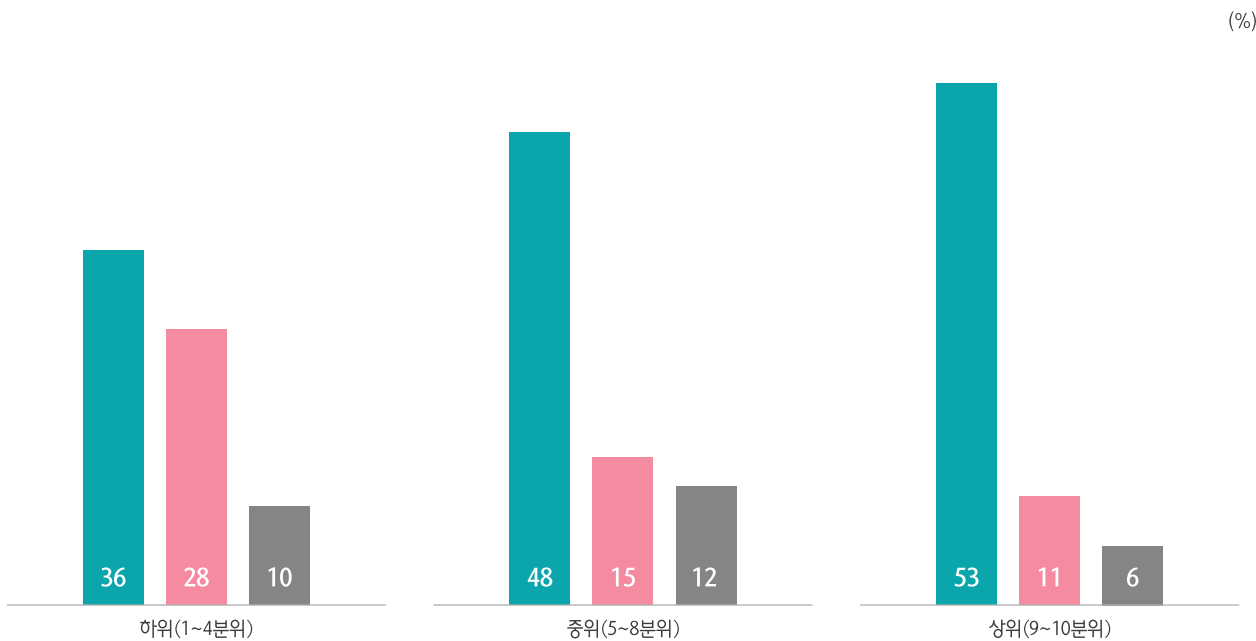
자녀 사교육 비용이 부담되는 이유(1순위)



n = 302(사교육 부담 응답 가구)

▶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사교육비를 충분히 대지 못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커짐

가구소득별 사교육 부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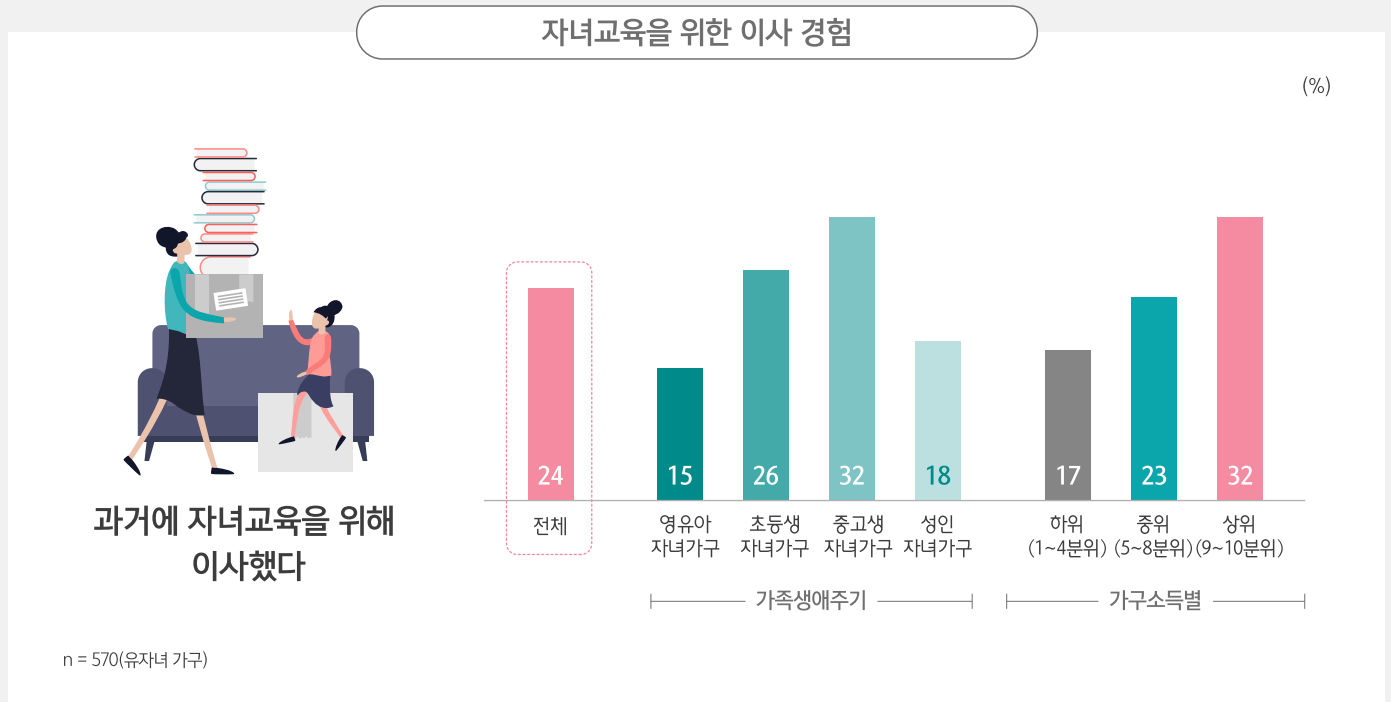


n = 302(사교육 부담 응답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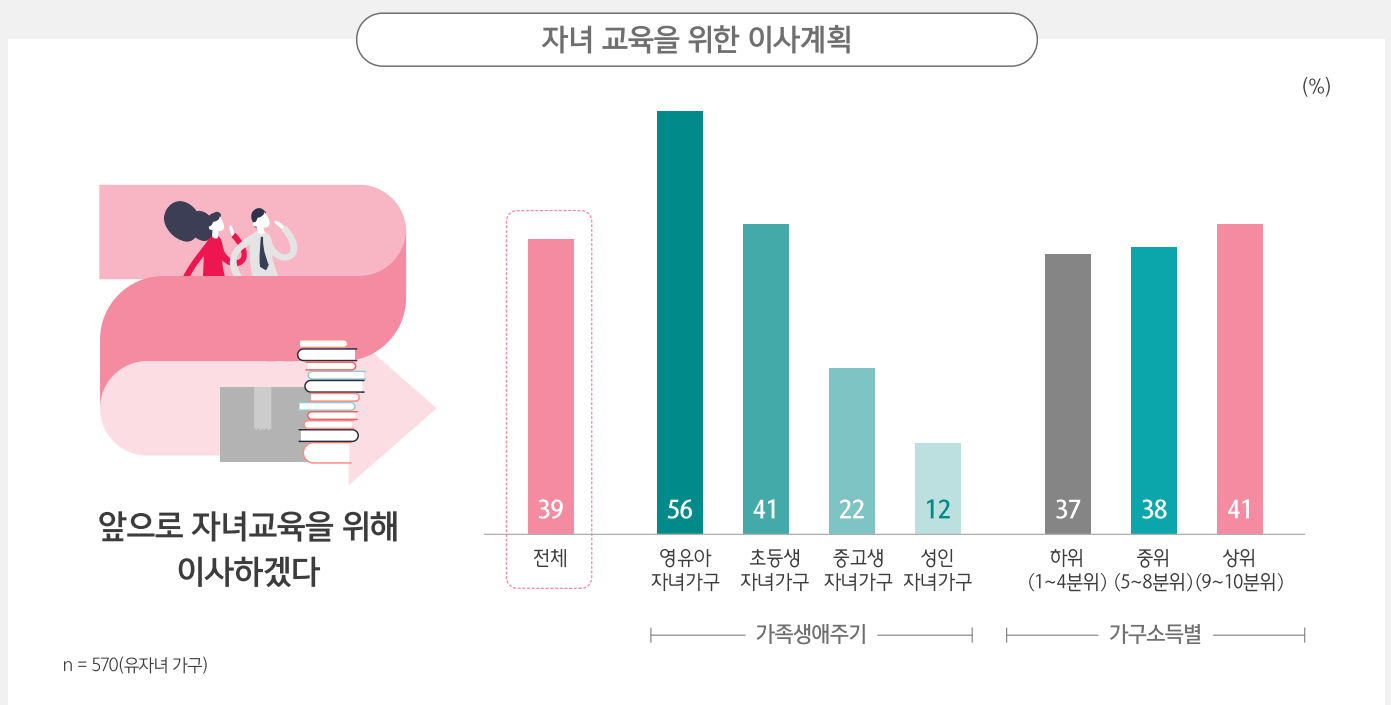
■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 ■ 자녀 교육비가 부족하다 ■ 대출상환이 늦거나 대출이 늘어난다

40대 부모 중 절반(53%)은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했거나 이사할 계획임

▶ 중고생 자녀 가구 중 32%, 초등생 자녀 가구의 26%는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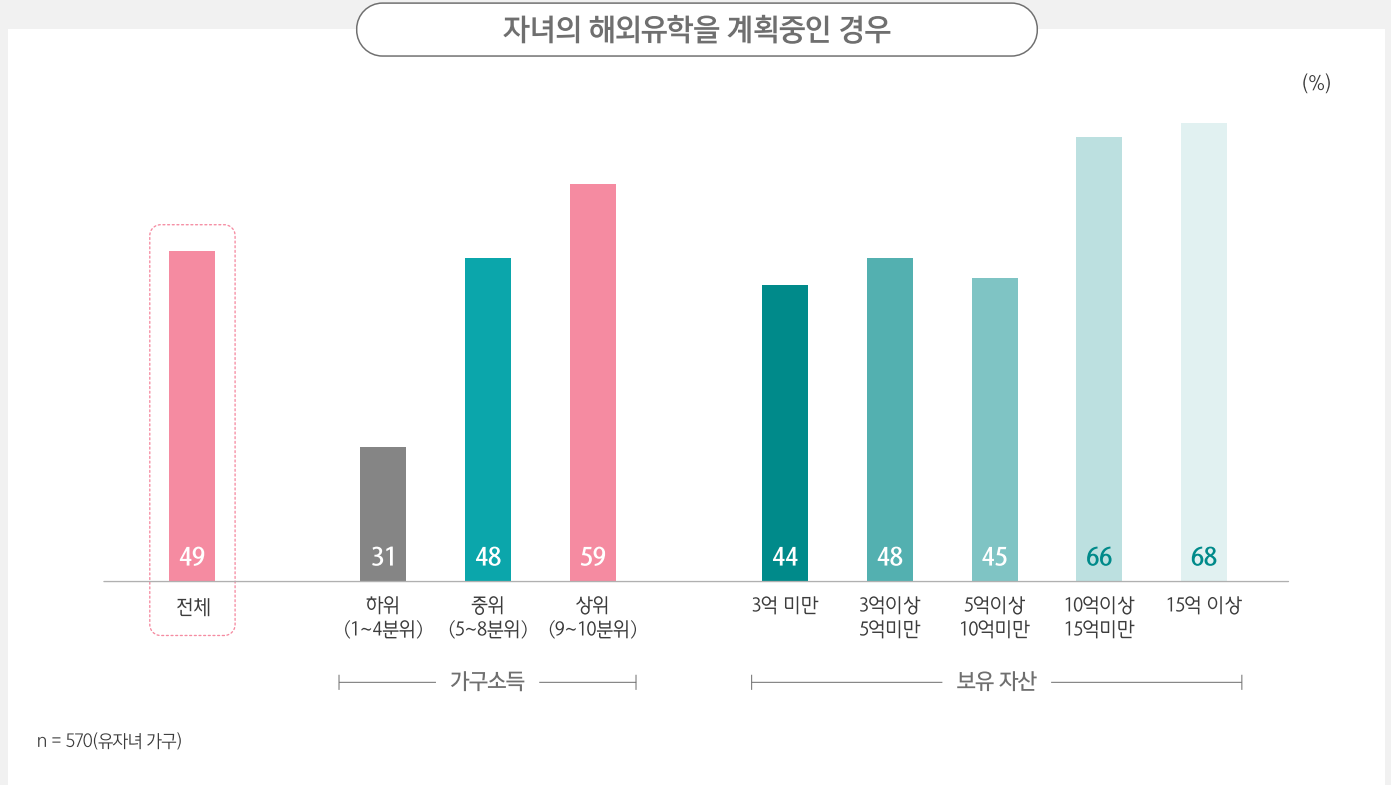


▶ 초등생 자녀, 미취학 자녀일수록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을 찾는 이주생각은 어려서부터, 실행은 자녀가 중고생일 때 마무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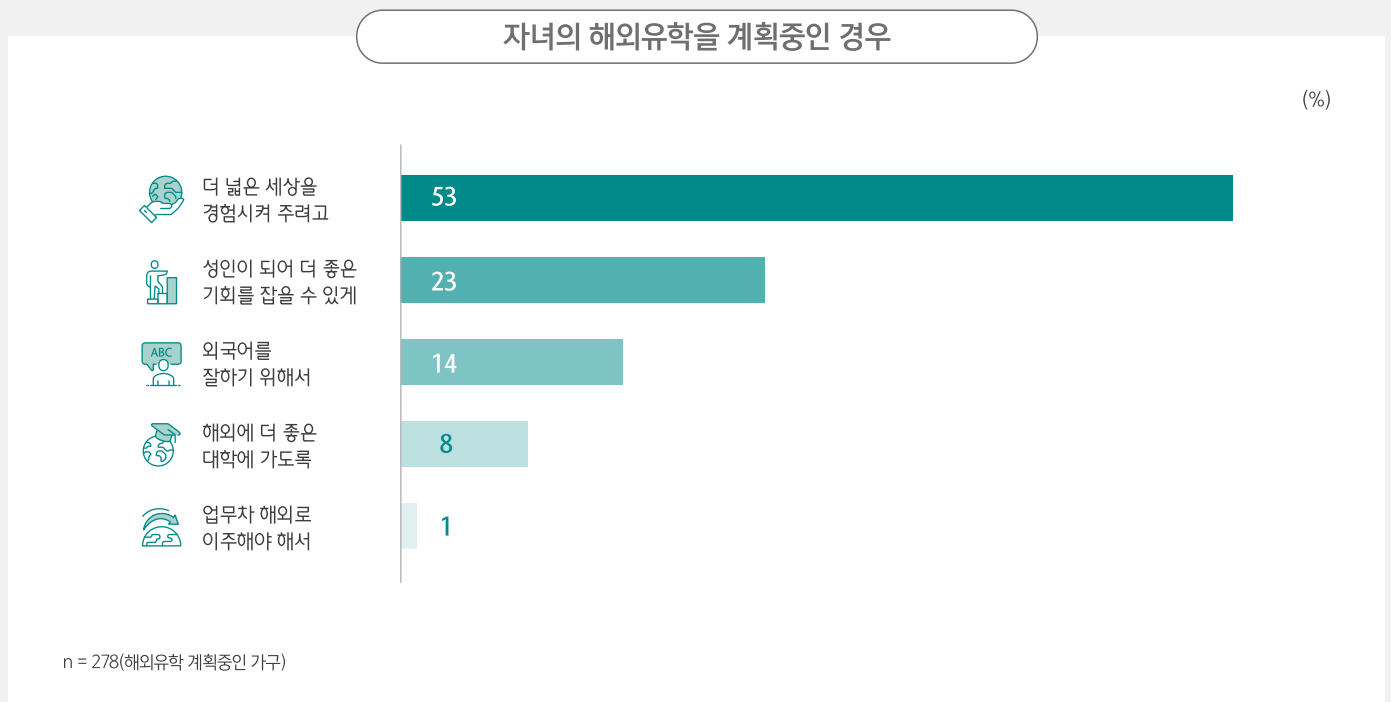


40대 부모 중 절반(49%)은 자녀의 해외유학을 생각해봄

▶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자산이 많을수록 해외유학을 계획중



▶ 해외유학을 준비중인 이유는 ‘경험을 넓혀주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꽃길 놓아주고 싶은 부모 교육비 충당 위해 ‘맞벌이’와 ‘투자’



어디로 이어지건 꽃길을 놓아주고 싶은 부모

“
특정한 진로를 정해주기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게
-
사교육 · 환경 · 해외 경험 무엇이든
지원해주고 싶다
”

공부는 많이 시키지만 결국 애가 원하는 데로 진로 결정할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대학 억지로 가는 것 보단 되려 외국에 한번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억지로 공부시킬 생각은 없는데요, 최소한 하고 싶다는 게 있을 때 그걸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주고 싶거든요.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과 투자 고군분투

“
경제력 때문에
자녀교육이 좌우될까 봐 걱정
-
교육비 때문에 다시 맞벌이로..
투자도 하기 시작...
”

코로나 때문에 자녀교육 결과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날 것 같아 걱정이예요.

자녀 사교육 비용 때문에 와이프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교육비 충당 위해 주식, 펀드, 관련 보험 같은 거 활용해요.

자녀 교육비 위해 펀드로 다 돌려놓았어요.
금리가 너무 적어 예적금은 별루예요.



[4순위] 인생과제 자기계발

“

자격증, 체력관리...
소소하게나마 자기계발중..

내 사업(창업)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 계획까지 이어지지는 못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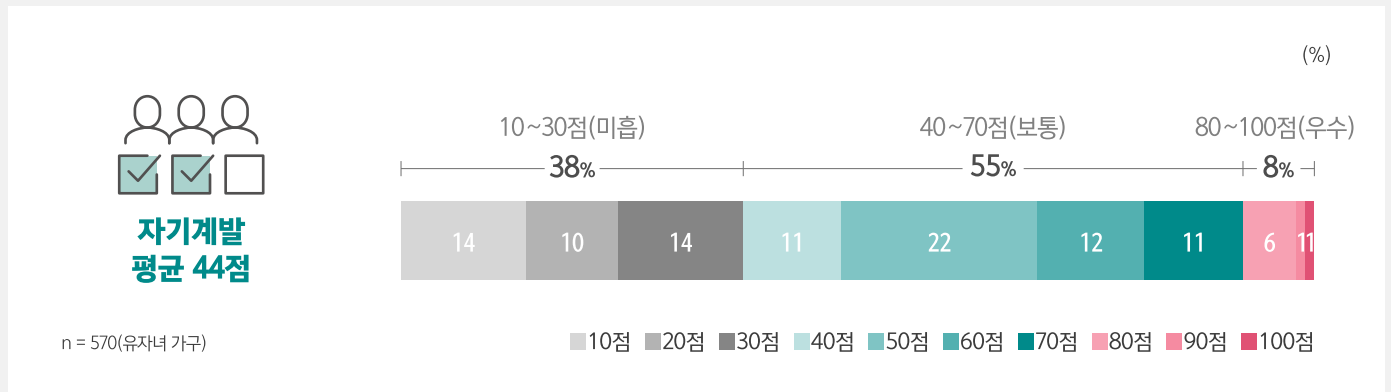
자기계발이 당장 최우선 인생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1위] 현재 직업(소득원)이 불안하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려고 35%
- [2위]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아성취를 위해 22%
- [3위] 현재 직장 퇴직 후 재취업 준비(완전 은퇴시점 연기) 17%
- [4위] 이직·승진·창업 등 현재 직장(직업) 내에서 소득을 높이려고 12%
- [5위] 창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려고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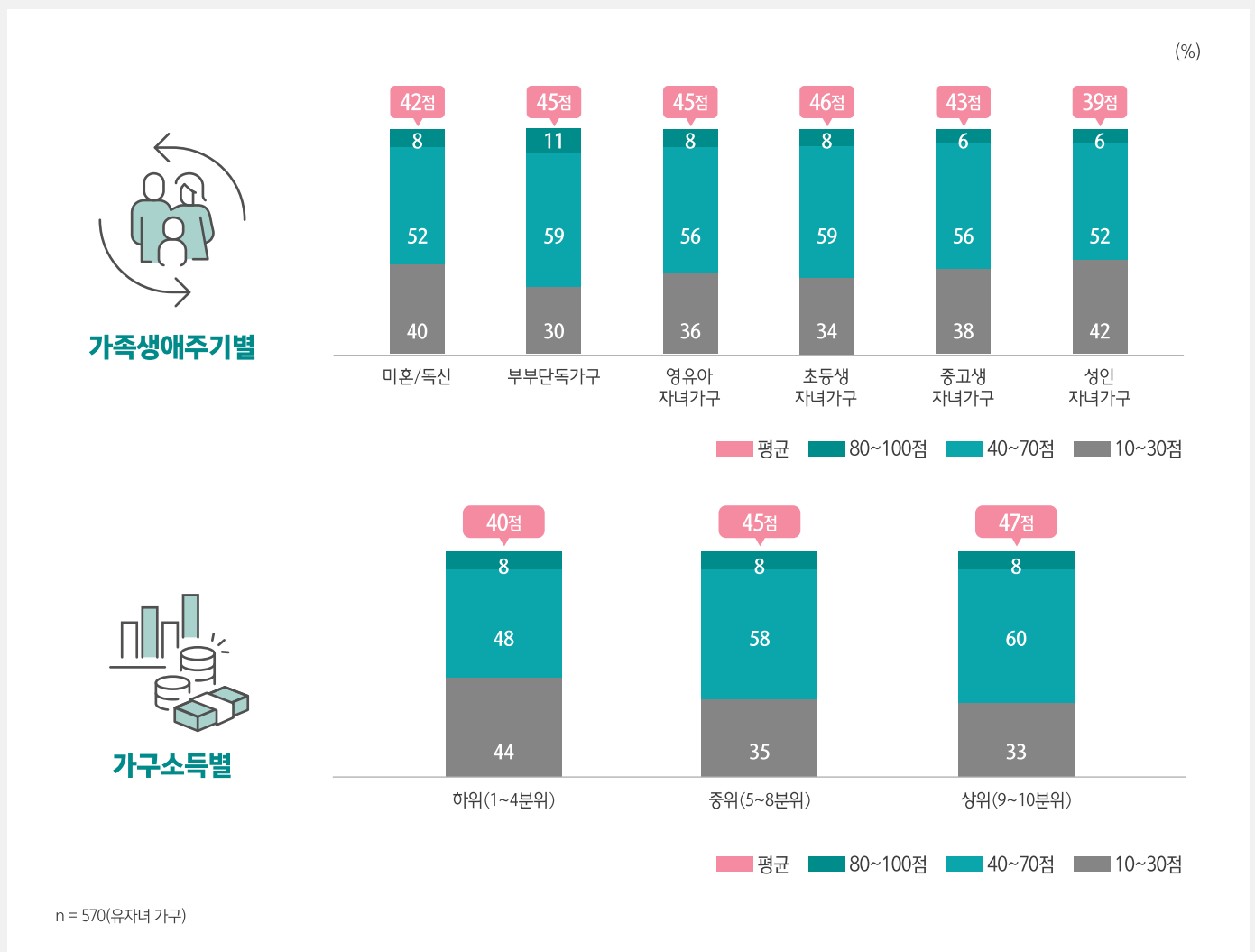
4순위 인생과제 「자기계발」 중간평가

44점으로 가장 낮아

▶ 38%가 자기계발에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잘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8%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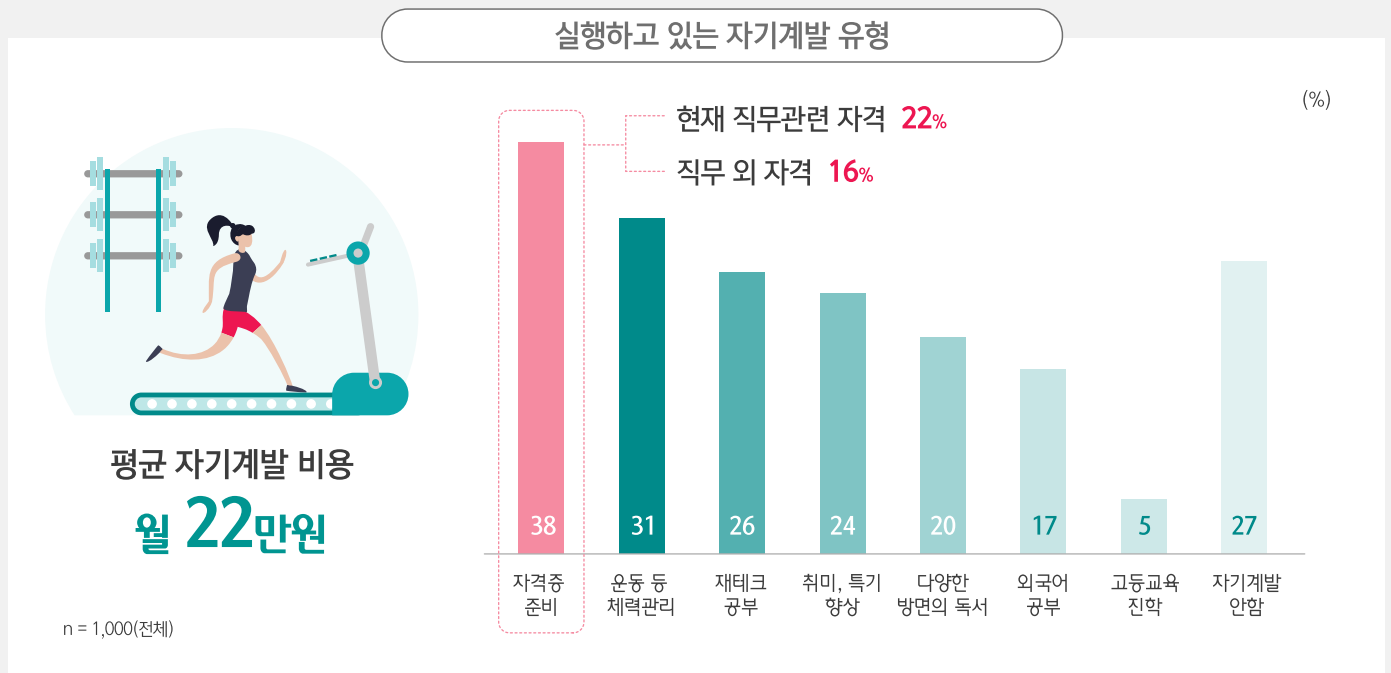


▶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성인자녀 가구일 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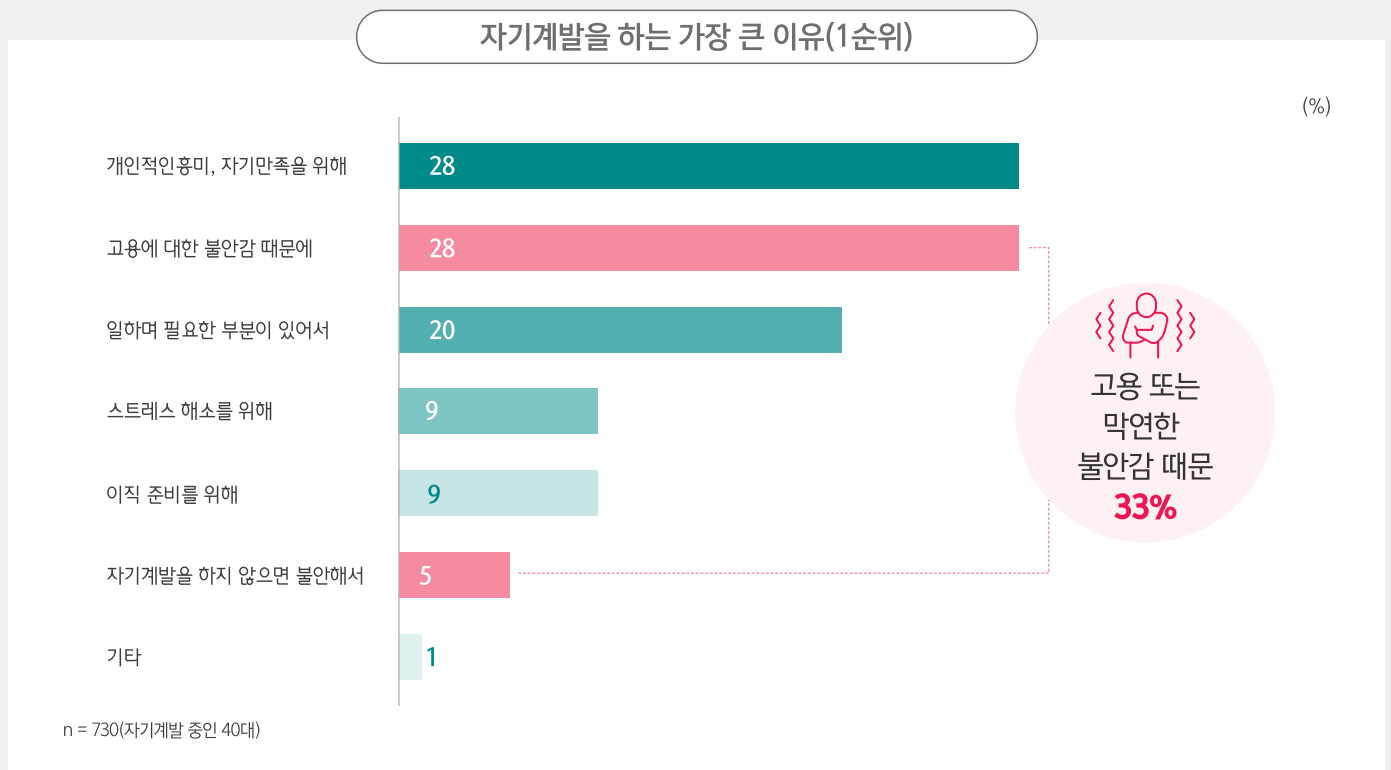


10명 중 7명은 자기계발 중이며, 월 22만원 지출 자격증 준비 > 체력관리 > 재테크 공부 순

▶ 가장 많이 하는 자기계발은 '자격증 준비(38%)'이며, 현재 직무관련 자격은 22%, 직무 관련 없는 자격증 준비는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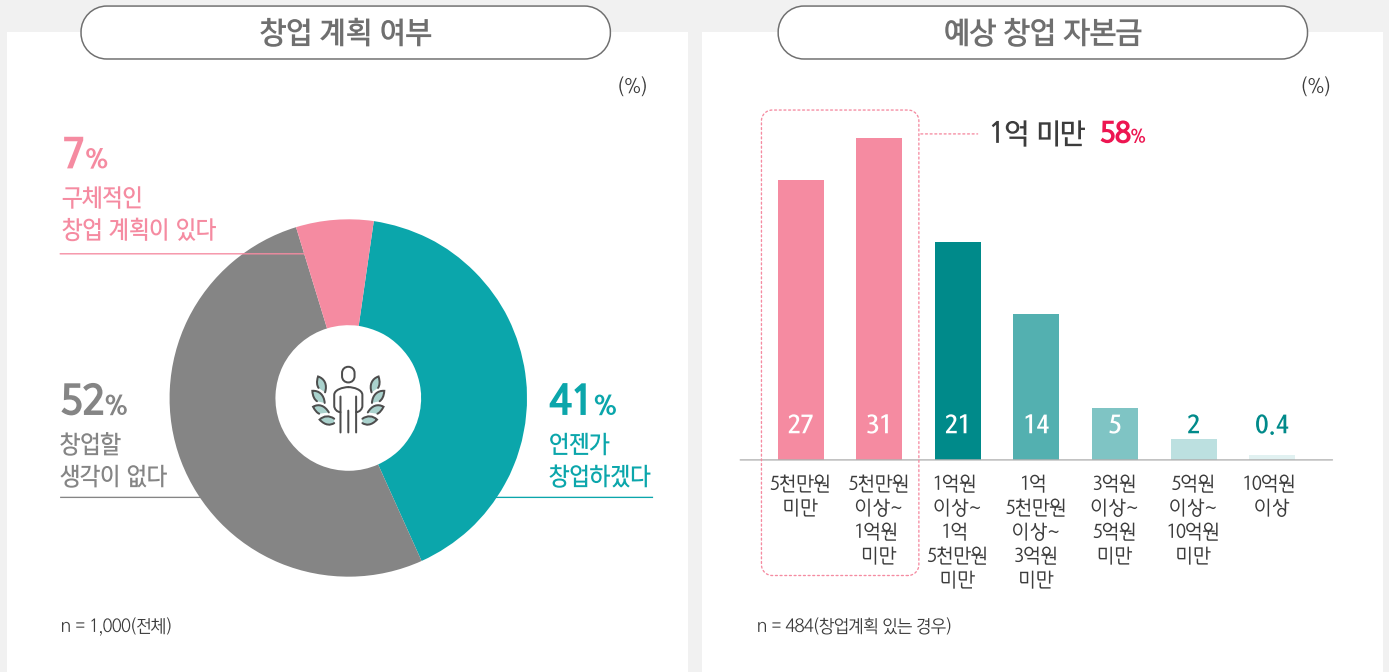


▶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에는 개인적인 흥미나 자기만족도 있지만 고용불안이나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측면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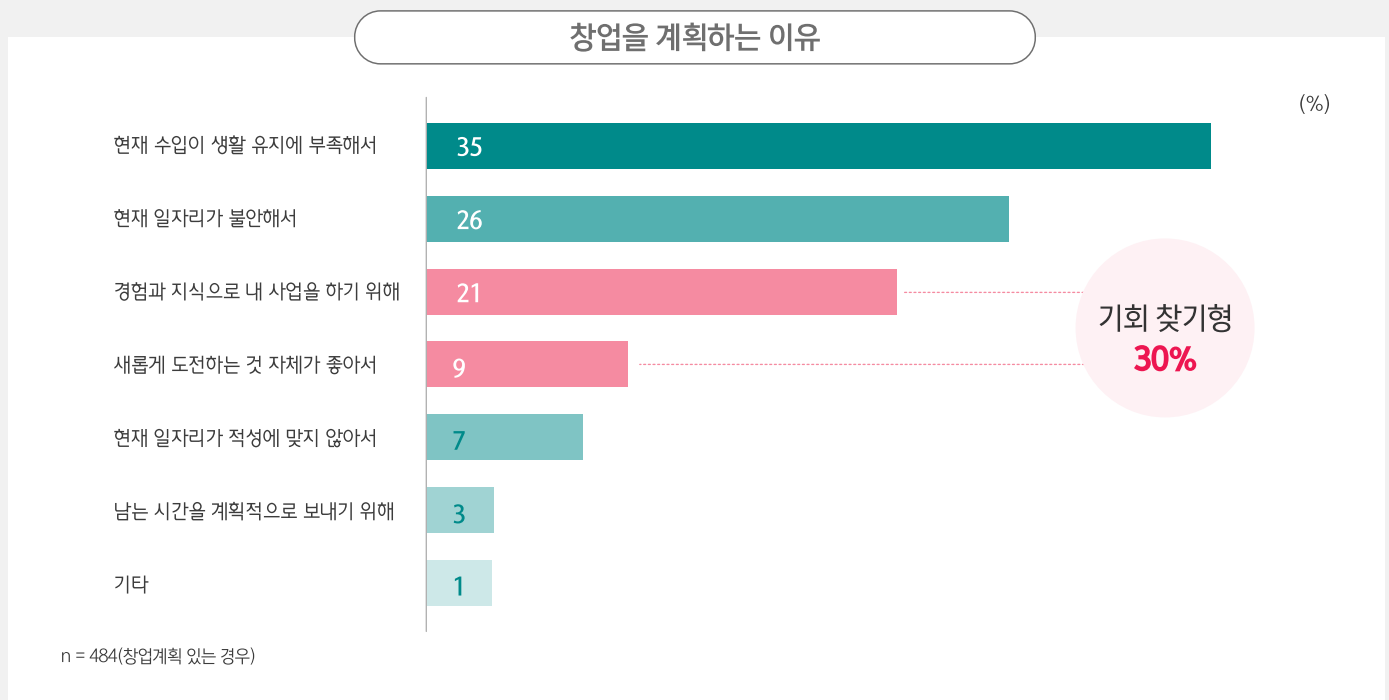


48%는 향후 창업해볼 생각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 절반 가까이(48%)가 창업 생각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경우는 7%에 불과
절반 이상이 창업 자본금으로 1억원 미만을 예상하고 있음



▶ 창업 이유로 현재 수입이 부족해서 또는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게 많았던 한편, 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등 '기회 찾기형'은 30%를 차지




생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관심 창업도 고려하지만 실패에 대한 걱정도...



**개인적으로 하고싶던 일
관련 창업과 봉사**

카페 하려면 마카롱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해서, 그런 것들 고민으로 1~2년 후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직 창업할 건 아닌데 너무 재미 있어서 바리스타 봉사 6년째하고 있어요.



자격증에 대한 관심

살다보니 자격증이 쓸 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격증을 딸 생각이예요... 노무사 같은 거요.

사회복지사가 있고, 도박중독이나 이런 분들 상담하는 민간자격증인데 중독전문가라고 그걸 따면... 상담센터 같은 데서 일 할 수 있죠.

정년이 짧은 업계의 경우 다음 안정적인 수익창출(월급)을 위한 자격증을 공부 중이에요.



창업 실패에 대한 걱정도..

사업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퇴직 후 생각 안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주식을 갖고 있으려고요.

창업 계획은 없어요.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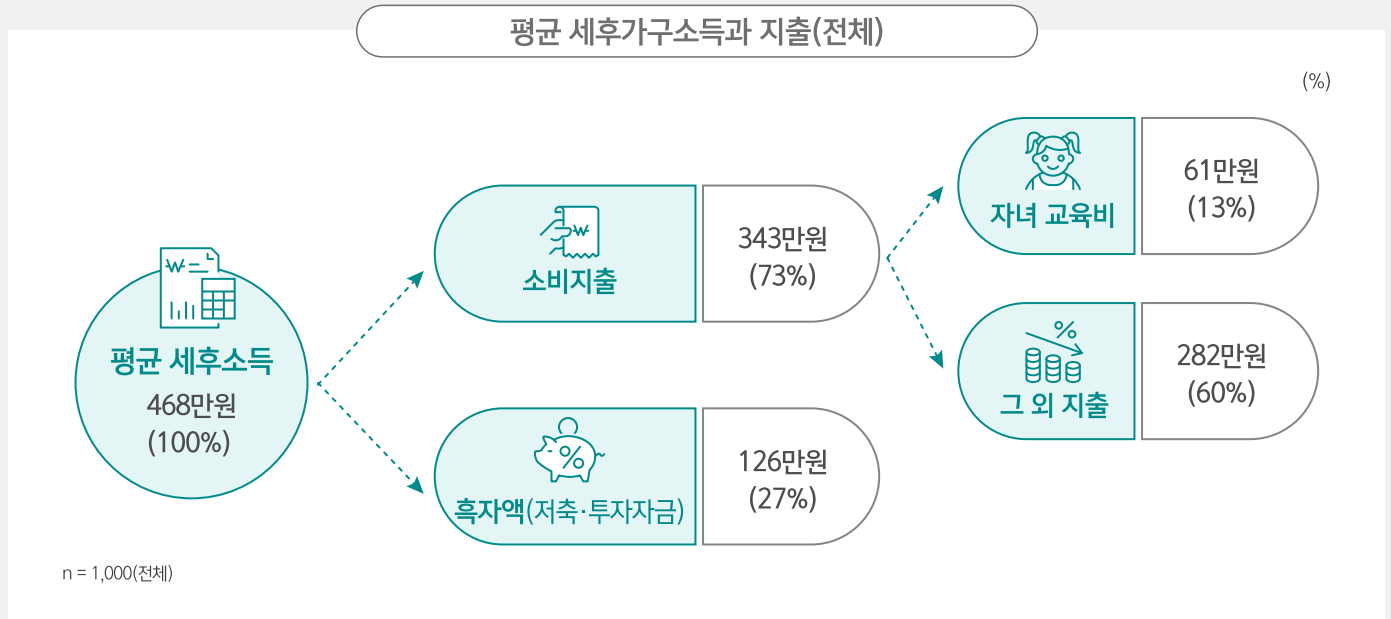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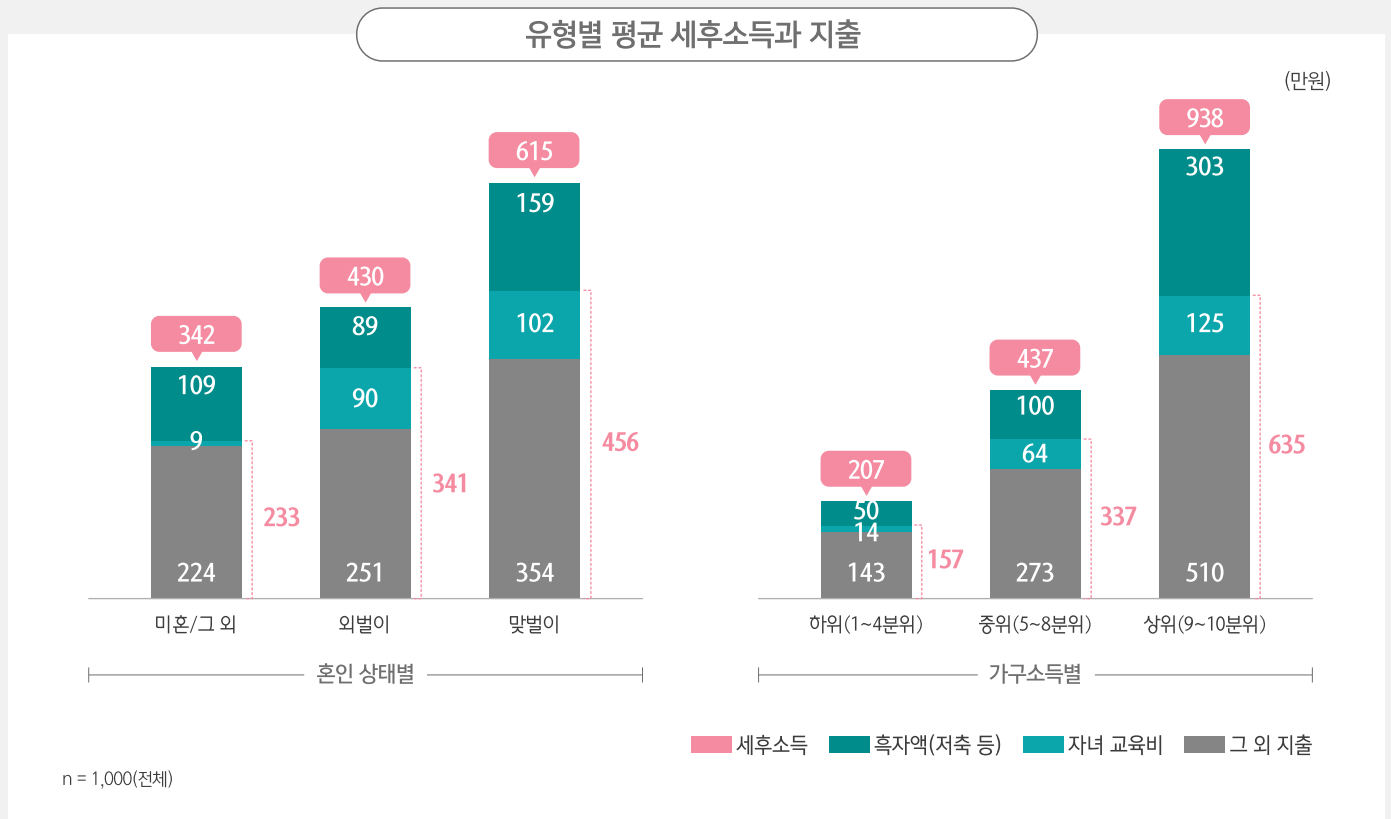
40대의 경제생활

서울 및 4대 도시의 40대 소득자, 소득은 평균 월 468만원(세후), 지출은 월 343만원

▶ 조사대상인 서울 및 4대 광역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40대는 월평균 468만원
세후소득(중위값 400만원)을 거두고 있으며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소득의 73% 지출



▶ 혼인 상태별로 보면 미혼일 때 보다 기혼일 때 소득이 높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1.4배 소득이 많음



65%는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고 평가 30%는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현재 소득이 생활비와 재테크 등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40대는 65%에 달하며,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39%)도 있지만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30%

소득에 관한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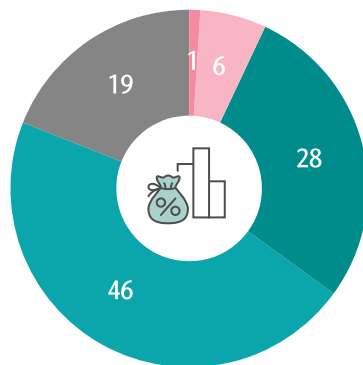
(%)

현재 소득은 충분한가?



65%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



-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하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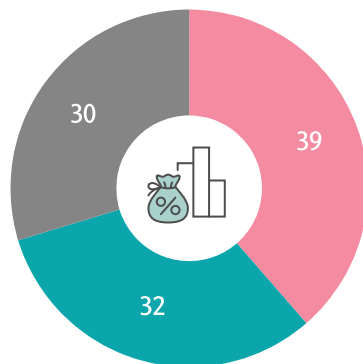
앞으로 10년, 소득은?

39%
앞으로
증가할 것



30%
감소할 것

소득에 대한 전망 엇갈려



- 증가할 것이다
-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감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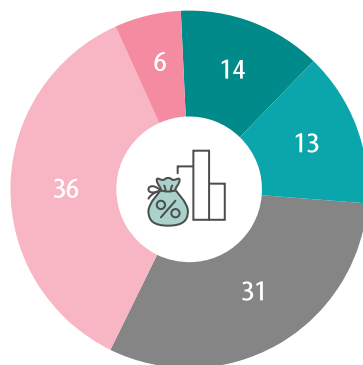
5년 전에 비해 현재 소득수준은?

42%
5년 전에 비해
늘었다



27%
5년 전에 비해
줄었다

n = 1,000(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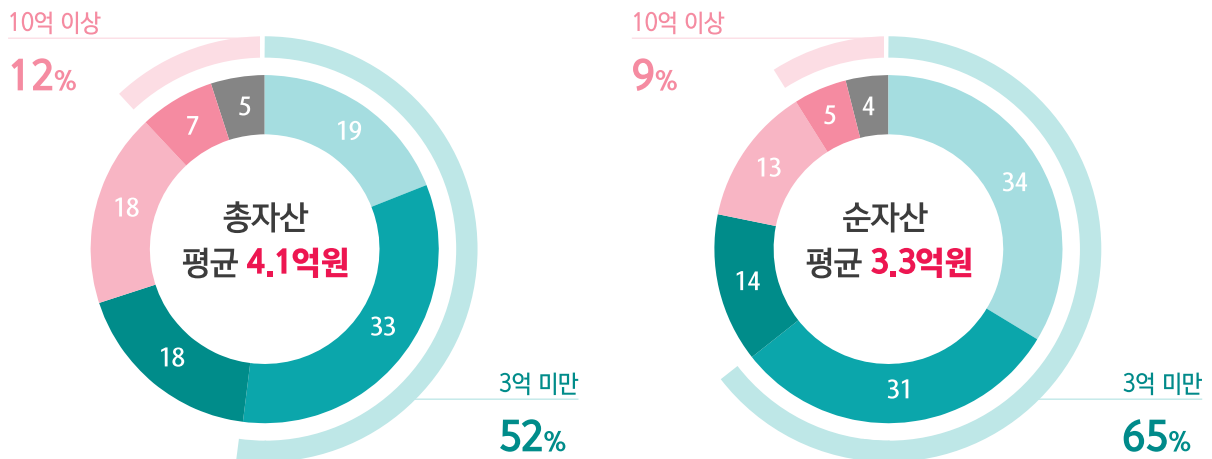


- 많이 줄었다(20% 이상)
- 조금 줄었다(10%~20%)
- 거의 그대로다(0%~10%)
- 조금 늘었다(10%~20%)
- 많이 늘었다(20% 이상)

40대 총자산은 평균 4.1억원, 금융자산은 7천만원

- ▶ 40대가 보유한 총자산은 평균 4.1억원(중위값 2.5억원)으로 집계, 총자산 3억원 미만이 절반(52%)이상인 한편, 10억 이상도 12%를 차지

40대 소득자의 총자산 및 부채 차감 후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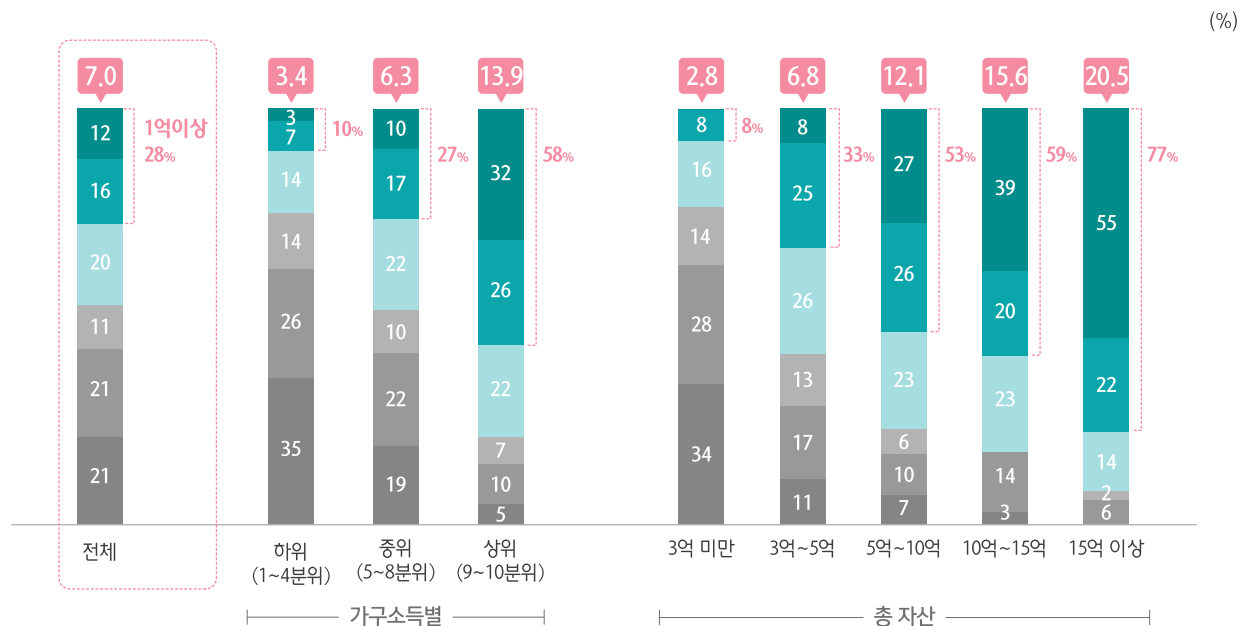


n = 1,000(전체)

1억원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억~15억 15억 이상

- ▶ 보유 금융자산은 평균 7천만원(중위값 4천만원)이며, 1억원 이상 보유한 비중은 약 28%

가구 유형별 40대의 보유 금융자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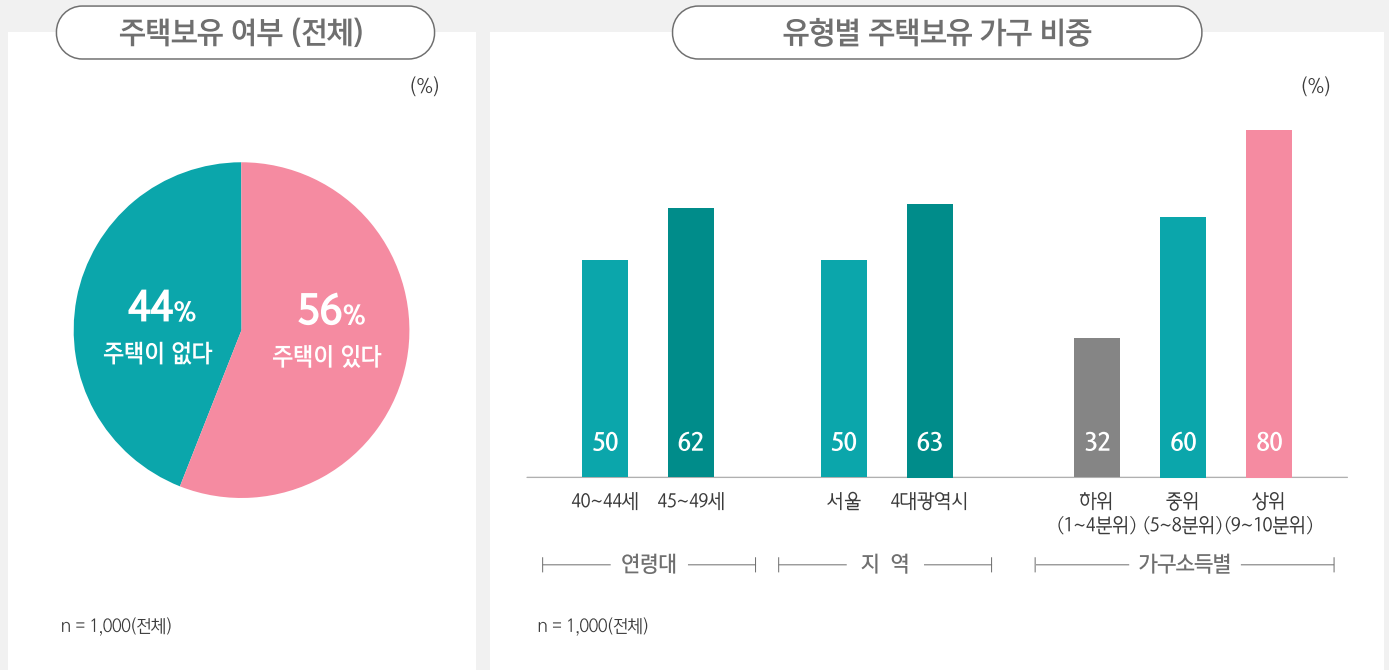
n = 1,000(전체)

평균 금융자산(천만원) 2억원 이상 1억원~2억원 5천만~1억원 3천만~5천만 1천만~3천만 1천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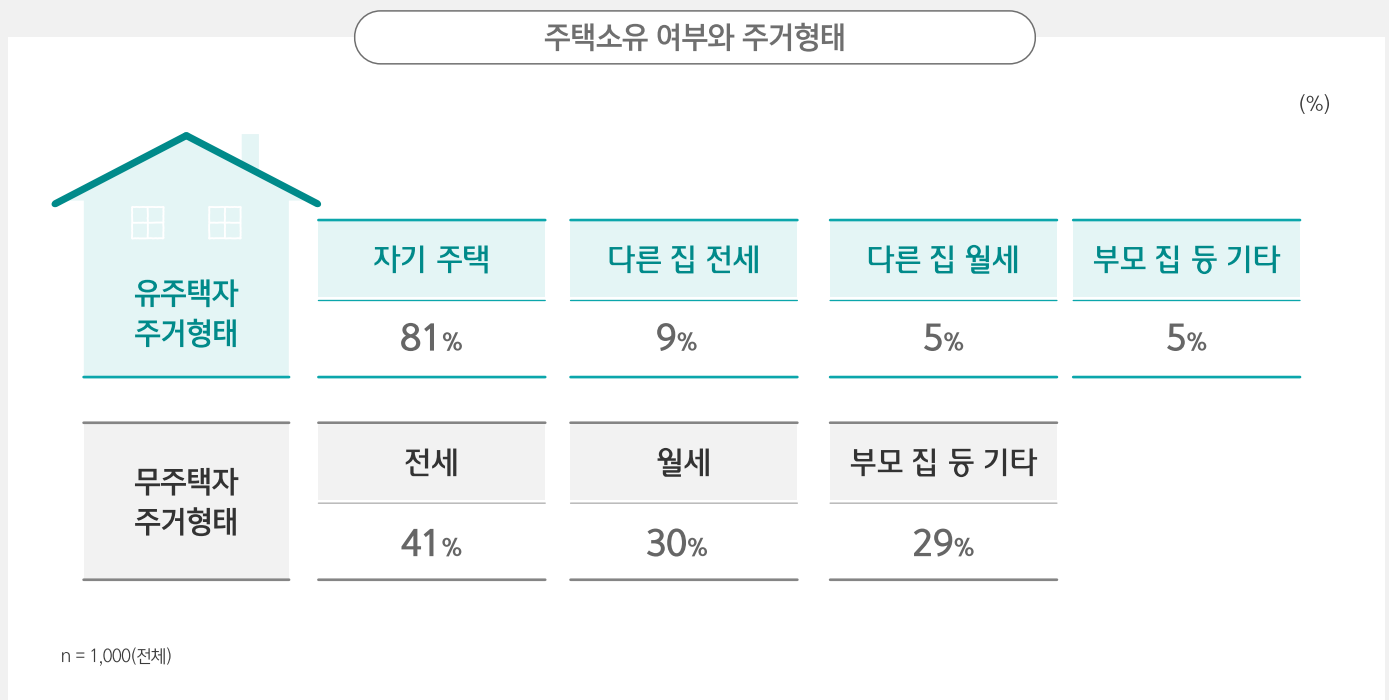
유주택자 비중은 56%

서울보다는 지방,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율 高

- ▶ 서울 거주 40대의 주택 보유율은 50%,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경우 63%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율이 높아져 상위 소득자인 경우 80%에 이릅니다



- ▶ 유주택자 가운데 자기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81%,
내 소유 집 대신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 사는 경우는 9%, 월세 사는 경우는 5%



대출 잔액은 평균 8천만원 3명 중 1명은 현재 대출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40대 3명 중 1명(34%)는 현재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7%

대출 평균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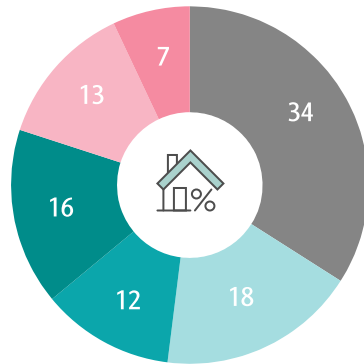


[대출 평균 잔액 **8천만원**]

n = 1,000(전체)

대출 잔액 규모별 가구분포

(%)



■ 대출 잔액 없음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7천만원
■ 7천만원~1.5억원 ■ 1.5억원~3억원 ■ 3억원 이상

n = 1,000(전체)

▶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 잔액은 평균 9천 4백만원, 그 외 신용대출 등은 평균 5천 9백만원을 보유

주거 관련 대출 잔액 분포

(%)



■ 모두상환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7천만원
■ 7천만원~1.5억원 ■ 1.5억원~3억원 ■ 3억원 이상

n = 526(주거 관련 대출 경험자)

주거외 대출 잔액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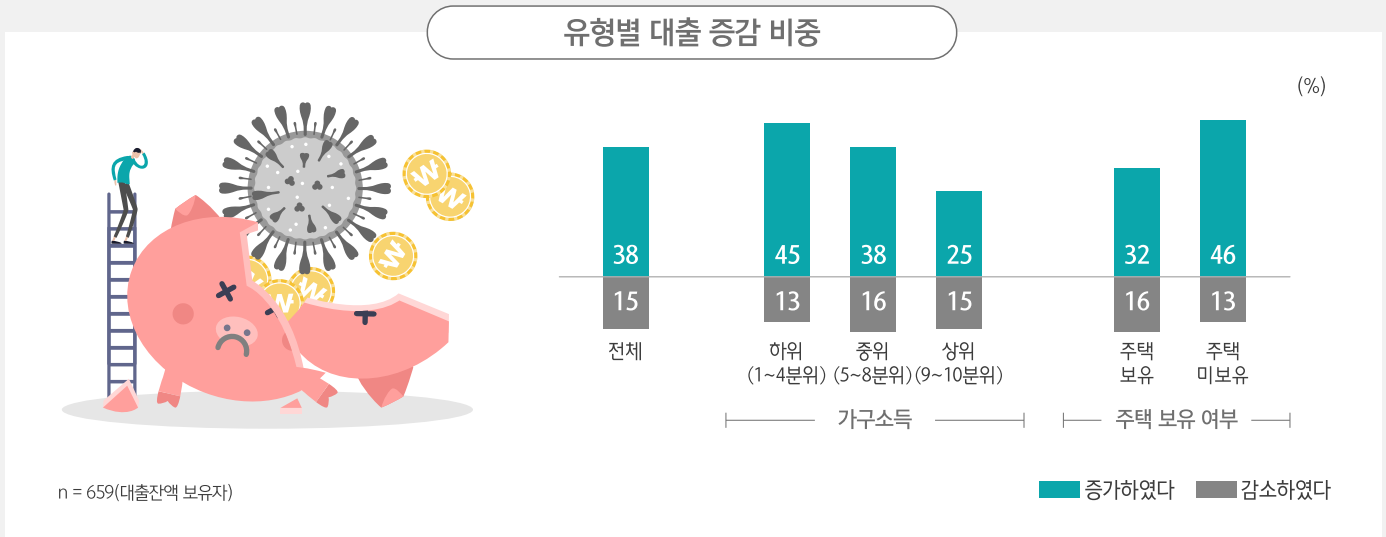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3천만원 ■ 3천만원~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1억원~2억원 ■ 2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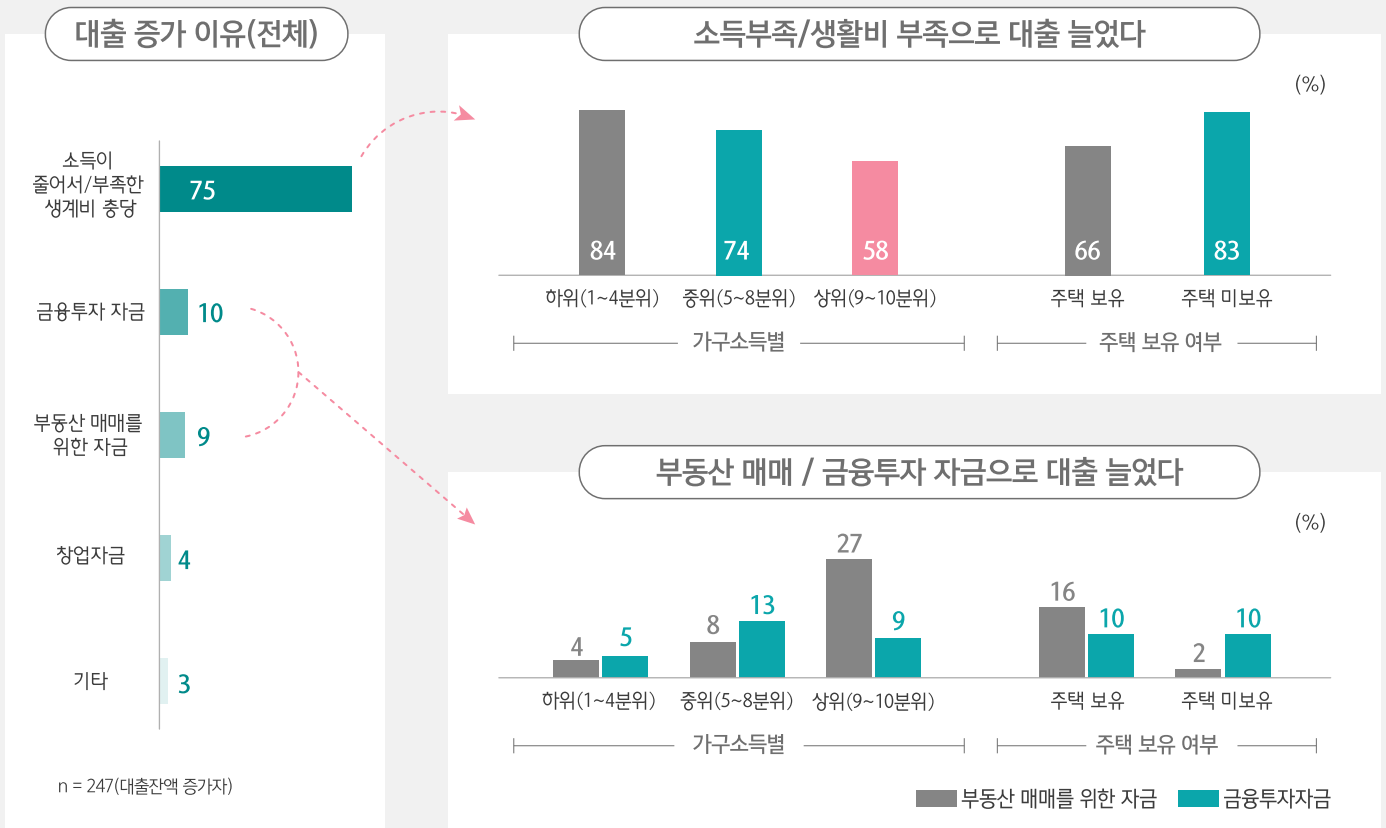
n = 523(주거 목적 외 대출 보유자)

COVID-19 팬데믹 이후 하위소득가구, 무주택 가구에서 대출이 더 많이 증가

▶ 가계대출이 감소하였다는 경우는 15% 전후로 계층별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출이 증가한 경우는 하위소득가구, 무주택 가구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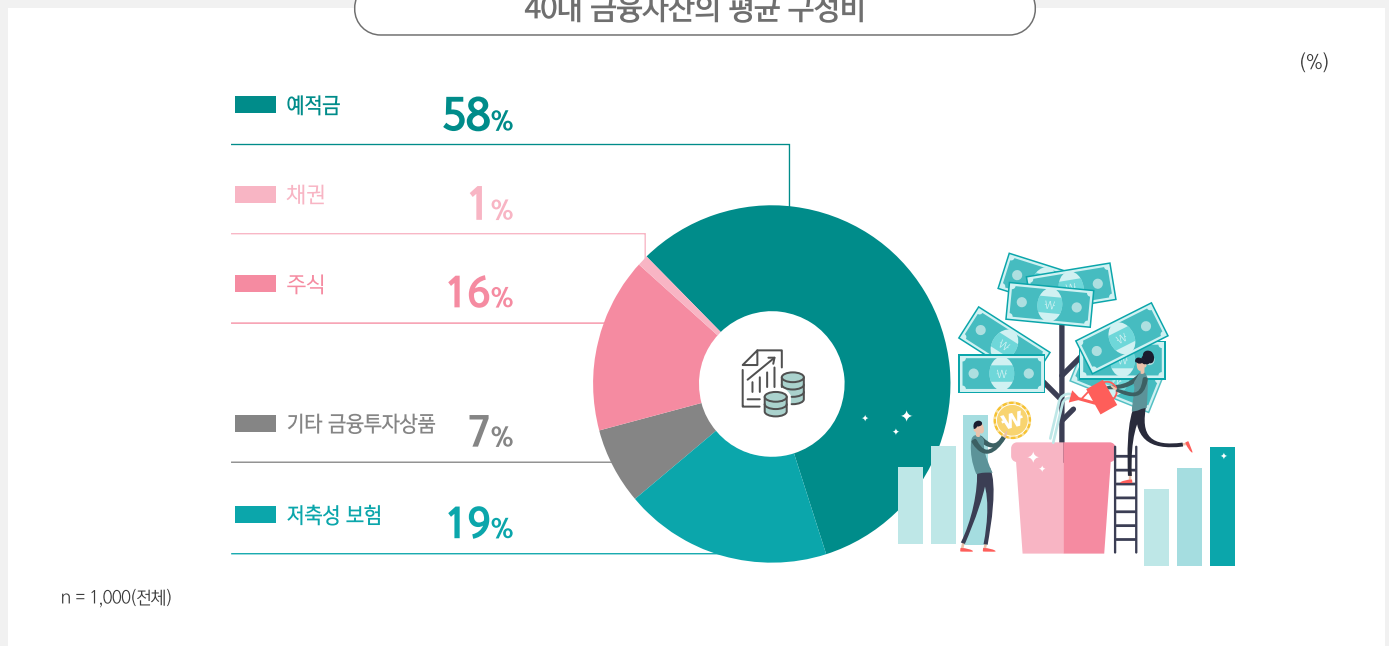
▶ 대출이 증가한 가구 가운데 75%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소득이 줄거나 부족한 생계비 충당을 위해
대출이 늘어났다고 응답함



금융자산은 예적금 중심, 금융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금융상품 비중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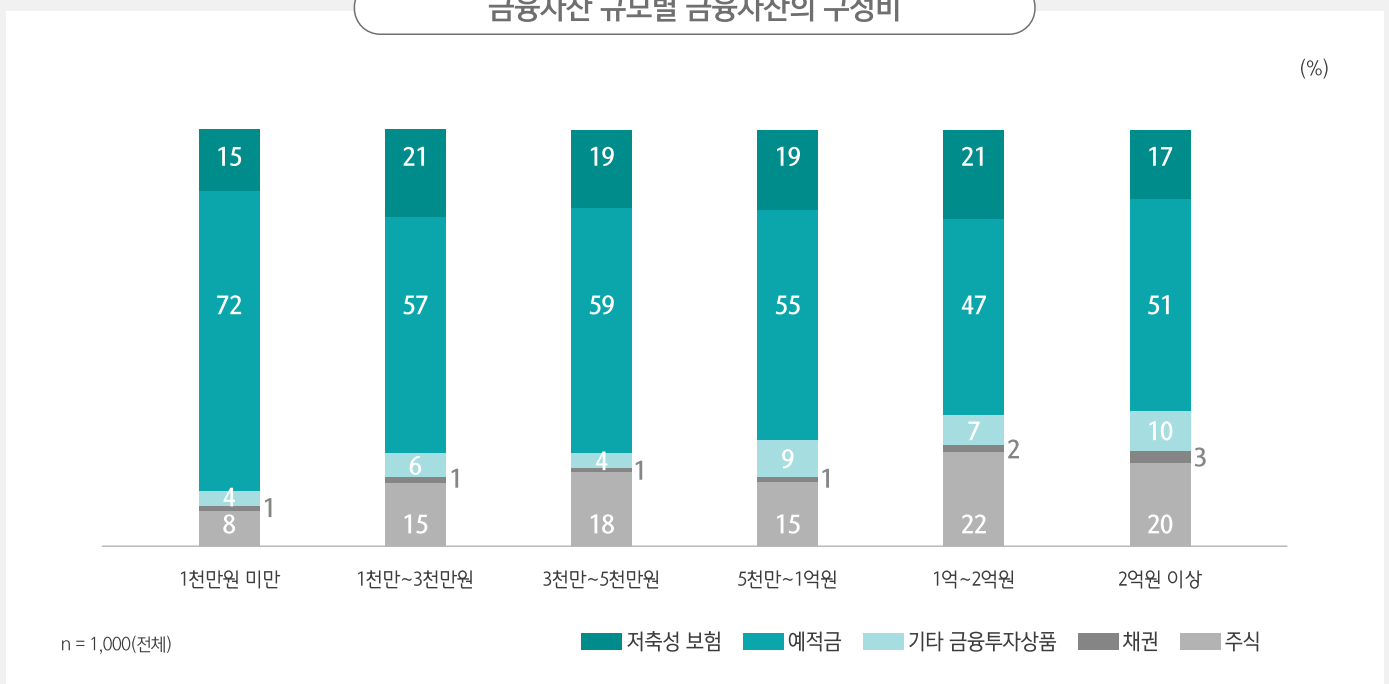
- ▶ 금융자산 가운데에서는 예적금이 58%를 차지하며, 저축성 보험이 19% 주식이 16%로 그 다음을 차지

40대 금융자산의 평균 구성비



- ▶ 보유 금융자산이 커질수록 주식·채권·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더 많이 배분하는 등, 투자를 늘리는 경향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유비중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음

금융자산 규모별 금융자산의 구성비



100년 행복연구센터 보고서 및 발간물



No.1_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년 05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평균 12.5년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퇴직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법”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함께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크레바스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다



No.2_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 ('20년 0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후걱정 없는 미래 금(金)퇴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드러난 금퇴족의 금융투자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노후자금 준비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금퇴족 점수표를 제시하였다



No.3_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주린이가 되기로 하다 ('21년 02월)

“COVID-19 팬데믹 이후 자산관리의 지형이 급변하는 시점 40대 역시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다”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리스크 수용 의향과 함께 최근의 금융투자에 관한 움직임을 살펴봤다

※ 생애금융보고서는 하나은행 웹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매거진 **하나원큐 M**

풍요로운 미래, 기쁨 가득한 오늘

자산관리&라이프스타일 매거진<GOLD CLUB>
은퇴설계 매거진<행복Knowhow>가 만나 <하나원큐M>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원큐 M ▲



「100년 통장」 100년행복연구센터 지음, 페이지2박스 ('20년 12월)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퇴직과 동시에 노후걱정 없는 금퇴족은 어떻게 다를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해야 할까, 연금부자 나라에서는 어떻게 연금플랜을 세울까,
내 연금자산을 제대로 굴리기 위한 키포인트를 제시한다

